





社說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 잘 되나?

- 2012년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가 할 일

‘2012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는 지난 2009년 11월 터키 에루즈름에서 유치를 확정지은 포천시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대회다. 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고, 포천시와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 공동주관하며, 2012년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포천시 대진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대회를 유치한 지도 1년 7개월이 훌쩍 지나 이제 10개월 후면 세계 각국의 선수단이 포천을 방문할 것이다. 포천시로서는 아직 세계대회를 치를 경험이 없어 내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대회기간 동안 50여 개국에서 선수단과 임원, 관람객 등 1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포천시는 40여 역원의 직접적인 지역경제 창출 효과와 중계방송으로 인한 포천시 인지도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와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조직위는 서장원 포천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장창영 상임부회장 등 체육계 인사와 김종현 포천시의장 등 기관·단체장 등 각계 인사 32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장도 수여했다.

내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조직위 구성원들이 이룸만 올려놓고 시간만 흘러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실행하는 조직위가 돼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선수와 임원들이 머무는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포천시는 세계 각국의 선수단의 숙소를 분산 배치하지 않고 일정한 참가비를 받아 한 곳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재정형편에 따라 숙소의 질이 달라진다면 선수단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포천시는 올해 완공될 일동의 컨트리호텔을 선수단의 숙박시설로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 완공전 이어서 사전 점검과 충분한 협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회의 도우미로 나설 자원봉사자 모집도 점검해야 한다. 포천시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1차로 자원봉사자 50명을 모집했다고 한다. 모집인원은 외국어통역 138명, 다문화가정 원어민 봉사자 10명, 일반자원봉사자 204명 등 총 352명이었지만 아직 참여여기는 저조한 편이다.

대회기간 중 자원봉사자는 외국인선수단 안내, 교통 및 주차장 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미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대진대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포천시가 독자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보다는 대진대학과 협의해 학생 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단에게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 포천의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포천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상품도 제시해 볼만하다. 내년 대회를 계기로 대진대 정문에서 캠퍼스까지 펼쳐지는 광활한 진입로를 축제의 장으로 마련해 보자는 제안도 수용할 만 하다.

대진대 문화철 건축공학과 교수는 내년 세계대학태권도대회가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 윤 교수는 우선 대회기간만이라도 참가국 선수단이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도록 다문화 축제의 거리를 만든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대진대 진입로는 얼마든지 포천의 명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포천시의 대진대측은 ‘또 한 가지 일을 만든다’는 냉소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 대회 조직위가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포천시가 처음으로 유치한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

포천시의회, 市 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0일까지 정례회 개최



2010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의

포천시의회(의장 김종천)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시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2010년도 결산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 등

을 처리할 예정이다.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포천시로부터 금년도 시청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고,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이형직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됐다.

김종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살펴 주시고, 이번 회기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천 의장은, 6월 27일 서동기 부시장 명예퇴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 그동안 포천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퇴임 후에도 지극히 넓리 보는 해안을 가지시고 더 큰 발자취를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또 하나의 고향 포천시 후원자로 남겠다”

서동기 포천시 부시장, 40년 공직 마무리 ‘명예퇴임’

박찬익 국장도 퇴임

“포천시 자랑스럽게 지켜볼 것”



지난 40여 년간 지방행정 발전에 헌신한 서동기 포천시 부시장의 명예퇴임식이 지난 6월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서 부시장은 지난 1971년 1월 25일 공직을 시작하여 경기도 강화군 건설과장, 하남시 건설과장, 도시과장, 오산시 도시과장, 건설과장을 역임했으며, 1993년 9월 1일에는 경기도 도시개발과 하수계장, 기반조성과 용수관리계장, 건설계획과 도로계획담당 등 주요 요직을 거친 후 1999년 6월 10일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승진해 경기도 세계도자기EXPO 조직위원회 파견근무, 상하수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지난 2005년 5월 21일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경기도 지역개발국장, 건설국장, 광명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고, 포천시 부시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특히 재임중에는 탁월한 행정수행능력으로 도지사 표창, 장관 표창 등을 수차례에 걸쳐 수상했고, 2001년도에는 경기도 상하수관리과장으로 재임하면서 국가사회발전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재임중의 주요 업적으로는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2009년도에 3개면 12개소에 마을기반정비사업을 실시했고, 교육문화센터와 문화복지시설 8개소를 건립 추진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신속히 집행해 신읍사거리~천주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주민불편해소에 공헌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구제역 발생 시 초동 대응부터 조기 종식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살처분 및 방역대책 추진, 예방접종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서동기 부시장은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소신과 보람을 가지고 일구어온 40여년 이였기에 부듯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디에 있든 또 하나의 고향인 포천을 생각하면서 항상 후

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퇴임인사를 전했다.

한편, 서 부시장의 명예퇴임식에 앞서 포천시 박찬익 건설도시국장이 지난 6월 24일 여성회관에서 명예퇴임식을 가지며, “35년간 공무원 생활 중 가장 보람되고 영광했던 순간을 가슴으로 새기면서, 시민중심 행복도시 포천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포천시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겠다”며 퇴직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박찬익 국장은 1976년 9월 7일 공직을 시작하여 산림과 보호담당, 식수담당, 지도담당을 두루 거친 후 1999년 6월 12일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승진해 산림과장, 내촌면장, 의회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10년 6월 30일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재직했다.

장영랑 기자 prostar44@gmail.com

‘제2차 포천시 민·관·군 안보협의회’ 개최

포천교육지원청 주관... 1백명 참석, 상호 협력방안 모색

‘2011년 제2차 포천시 민·관·군 안보협의회’가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웅) 주관으로 지난 6월 22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천시 민·관·군 안보협의회는 포천시 청소년 안보의식 계도와 사회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6월 4일 설립됐으며, 2011년 제1차 안보협의회가 서길원 6군 단장의 주관으로 지난 3월 25일 군 단사령부에서 진행된 바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발전하고 있는 협의회는 그 주제를 단순히 통일·안보 분야에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을 건전한 미래 지도자로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으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삼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주관 측인 이철웅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비롯해 서장원 포천시시장, 서길원 6군단장,

윤춘근 포천제향군인회장, 김창희 군단기무부대장, 포천시 안보관련 단체장, 관내 초·중·고교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에서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통일·안보프로그램에 포천 관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고, 포천교육지원청은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학생 생활지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도록 요청했다.

이철웅 교육장은 “통일로 하나된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자 역사적 사명이나, 다양한 국내외 사정으로 통일 한국이 언제 실현될 것인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이 때에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 통일 및 안보의식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행사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장영랑 기자 prostar44@gmail.com

김영우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우수상 수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사진)은 22일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8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 의원 53명이 받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 헌정대상’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감NGO 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8대 국회 출범이후 지난 3년간 ‘본회의 출석률’, ‘법안발의 현황’ 등 10개항의 객관적 지표로 개량화한 후 이를 종합평가해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김영우 의원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를 다한 것인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상의 취지처럼 남은 18대 임기 동안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포천·연천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14기 해단식

오병익 회장 연임 확정... 7월말 15기 ‘출발’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회장 오병익)는 지난 6월 24일 오후 5시 포천시 신읍동 소재 사무실에서 14기 제16차 임원회의 및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에는 오병익 회장을 비롯해 이준호 수석부회장, 박광현 기획운영위원장, 남종현 교육홍보위원장, 정순이 여성분과위원장, 손성국 청년분과위원장, 김종현 새터민봉사단장, 이규진.최병문 새터

민봉사단 부단장, 임종훈 간사, 장혜정 행정실장 등이 참석해 지난 2년간 각종 행사참여와 교육, 연수 등 14기 주요 활동현황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병익 회장은 14기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자문위원과 통일무지개 회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에서 통일안보의식을 다지는 활발한 활동과 성과도 적지 않았다”며 “이러한 성과들은 민주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병익 회장은 15기 회장으로 연임됐으며, 15기는 7월말께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출범할 예정이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  
사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  
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21일 ~ 6월 30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 발행 현황

2011.06.20 포천신문 제522호 발행

2011.06.30 포천신문 제523호 발행

2011.07.10 포천신문 제524호 발행 예정







## ■ 6.25 제61주년 기념식

# 육군 5군단 전국 최대 규모 위령대제 가져

포천재향군인회도 기념식... “우리의 자유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자”

육군 5군단(군단장 심용식 중장)은 6월 25일 6.25전쟁 제61주년을 맞아 제28회 호국영령 위령대제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8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8년 역사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6.25전쟁 등 한국전쟁 전몰장병 13만여 명과 16개 참전국 5만여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이번 호국영령 위령대제 행사에는 육군 5군단 및 인접부대 지휘관, 참모, 장병, 포천시 및 철원군 기관 단체장, 지역 보훈단체(6.25참전 국가유공자회,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등), 종교 인사(군종교구장, 군법사) 등 전국에서 5천여 명이 참석했다.

전군에서 실시하는 호국 위령 행사로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 이번 5군단 위령대제는 모두 2부 행사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호국영령 천도의식, 2부에서는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 및 분향 등 추모의식 행사를 가졌다.

특히 올해 4월부터 군단에서 시작한 ‘6.25참전용사 병적기록부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참전용사 7명에게 병적기록부 및 인

식표를 제작해 직접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또 각종 전투장비 및 무기 전시와 6.25 사진전 관람, 안보동영상 상영 등도 병행해,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고 안보의식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편, 포천시와 포천시재향군인회는 지난 6월 25일 포천 반월아트홀에서 ‘6.25전쟁 제6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우 국회의원, 서장원 포천시장, 김중천 포천시의회 의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서길원 6군단장 등 군 관계자, 윤

춘근 포천시재향군인회 회장·박대일 6.25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 등 관내 안보단체장, 대진대 학군단 장교후보생, 시민까지 7백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전쟁경과·교훈 발표, 대화사, 격려사, 참전용사 회환 증정 및 사진촬영, 결의문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반주로 3사단 군악대가 참여했으며, 식전행사로 색소폰 연주와, 민요 공연 등이 있었다.

윤춘근 포천재향군인회장은 대회사에서 “자유가 있었기에 꿈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에 발전이 있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피와 눈물 그리고 통탄 위에 서 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발전을 위해 안보의식을 확고히 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라를 다스리자”고 당부했다.

이우일 포천신문 노인명예기자

## 양호식 포천로타리클럽 24대 회장 취임

“봉사의 이상이 지역사회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



포천로타리클럽(회장 양호식)은 지난 6월 20일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포천로타리클럽 제23대·제24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춘원 이영종 2010-2011 23대 회장이 이임하고, 춘수 양호식 2011-2012 24대 회장이 취임했다. 이번 행사의 1부는 천경렬 23대 총무의 사회로 로타리클럽 입회, 개회선언 및 타종, 국민외래, 로타리 강령 및 포웨이 테스트 낭독, 로타리송 제창, 내빈 및 내방 로타리안 소개, 클럽연혁 및 봉사활동 현황보고, 시상, 이영종 회장 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이관영 신임총무의 사회로 양호식 신임회장의 취임선서, 클럽기 인계 및 배지 교환, 취임사, 이임회장에 감사패 및 행운의 열쇠 전달, 꽃다발 증정, 역대회장 소개, 차기 임원 소개, 신임회원 입회선서, 동남고 인터랙트클럽 등에 장학증서 전달, 총재치사, 축사, 공지 사항, ‘고향의 날’ 노래, 폐회선언 및 타종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에는 평산 이광목 총재지역

대표, 이영종 회장, 천경렬 총무 등에 감사패가 전달됐고, 총재 표창장이 천경렬 총무에게, 지역대표 표창장이 김억경·전희수 회원에게 각각 수여됐다.

양호식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장으로서 칼리만 배너지 총재님, 안희진 총재님의 목표를 받들어 로타리운동을 확산시키고 춘원 회장님의 업적을 승계해 포천클럽의 전통을 쌓아갈 것”이라며 “회원증강에 앞장서고 재단 기여에 동참, 봉사의 이상의 지역사회의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신세대가 로타리를 통해 봉사의 이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영종 23대 회장은 이임사에서 “임기 내에 무엇보다도 회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많은 것이 부족하고 아쉬웠다”며 “탁월한 지도력으로 앞으로 클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양호식 회장의 손과 발이 돼 초야의 봉사 정신을

계승·발전 시켜나가길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정삼 포천시민회장, 이한철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이만규 포천문화원장, 윤석희 포천시 총무국장, 이영주 포천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장, 고조흥 포천국회의원, 김영오 포천예총 회장, 김중국 포천생활체육회장, 오병익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장, 김광우 포천미래포럼 회장, 이육자 포천여성단체협의회장, 송창희 포천국악협회장, 임상철 포천골프협회장, 김영석 포천불림협회장, 이주철 포천배드민턴협회장, 조대행 동남고등학교 교장, 황규환 대진대CEO 과정 총동문회장, 차상현 포천중·일고 총동문회장 등 관내 내빈과 이광목 3690지구 제17지역 총재지역대표, 이봉환 제18지역 총재지역대표, 동두천·의정부·연천·양주·의정부중앙·동포천·동두천송지·포천어울림·연천나누미로타리클럽 회장 및 회원 등 관계자가 3백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장영랑 기자 prostar44@gmail.com

##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 포천시에 책 1,100권 기증

‘조선의 슈퍼스타 토정 이지함’ 쓰며 포천에 관심

5개 작은도서관에 장서 부족한 것 알고 기증 결정

이태복(사진)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포천 관내 5개 작은도서관에 도서 1천1백여 권을 기증했다. 이태복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인간의 대지’에서는 포천 소홀도서관에 이태복 전 장관이 그간 수집한 어린이 도서 등 1천1백여 권을 기증했다.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해 복지제도의 내실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이태복 전 장관은 조선시대 포천의 현감이던 토정 이지함에 대한 일대기 ‘조선의 슈퍼스타 토정 이지함’을 쓰며 포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작은도서관의 장서가 부족함을 알고 이번 기증을 결정했다.

이태복 전 장관은 무의탁 노인을 돌보는 사회복지단체 ‘인간의 대지’ 이사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위기극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기류값, 핸드폰 요금,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 금리 등 5대 거품을 걷어내자는



취지의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로 바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해외 동포에게 한글책 보내기 운동을 펼치는 등 독서문화 전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소홀도서관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작한 도서기증운동에 포천시민은 물론이고 지역 밖의 저명 인사까지 함께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서기증운동을 활성화해 다양한 도서 제공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영랑 기자 prostar44@gmail.com

## 포천 곰두리두레 ‘해피하우스’ 베이커리 오픈

“즐겁게 빵 만들며 경제적 자립까지 이루길...”



장애인주관보호시설인 포천 곰두리두레마을(원장 김종수)의 베이커리 판매점 ‘해피하우스’가 지난 6월 24일 기념행사를 가지며 드디어 오픈했다.

곰두리두레마을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로 3년째 장애인 직업재활 제빵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장애인직업재활프로그램 ‘곰두리베이커리’를 활용한 지역사회 화나눔프로젝트 ‘나눔의 기적 행복 배달부’ 사업을 진행해 길거리 시식회, 일일 빵 카페 운영 등을 거쳐 이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 해피하우스의 문을 열게 됐다.

이날 오픈 기념행사에는 김종천 포천시의회 의장, 이상원 포천경찰서장, 홍운기 포천시 경제생활지원국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홍운기 경제생활지원국장은 “곰두리두레마을을 친구들이 제빵작업을 통해 일의 즐거움을 느끼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자아를 실현해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곰두리두레마을(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22-1, ☎031-536-9545~6, www.pogom.net)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랑 기자 prostar44@gmail.com

## 포천미술협회 회원·초대작가 기획전시회

‘제6회 자연+사람+미술의 어울림-2인3색전’

임승오 지부장 “아름다운 포천의 풍광 그려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포천시 지부(지부장 임승오, 이하 포천미술협회)는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관 1층에서 2011년 기획 전시회로 ‘제6회 자연+사람+미술의 어울림-2인3색전’을 개최했다.

포천미술협회는 20일 오후 5시 전시관에서 홍운기 포천시 경제생활지원국장, 최길순 한국미술협회 경기북부지부협의회 회장, 김영오 포천예총 회장, 이만규 포천문화원장, 이원용 포천문인협회 협회장, 송창희 포천국악협회 지부장, 홍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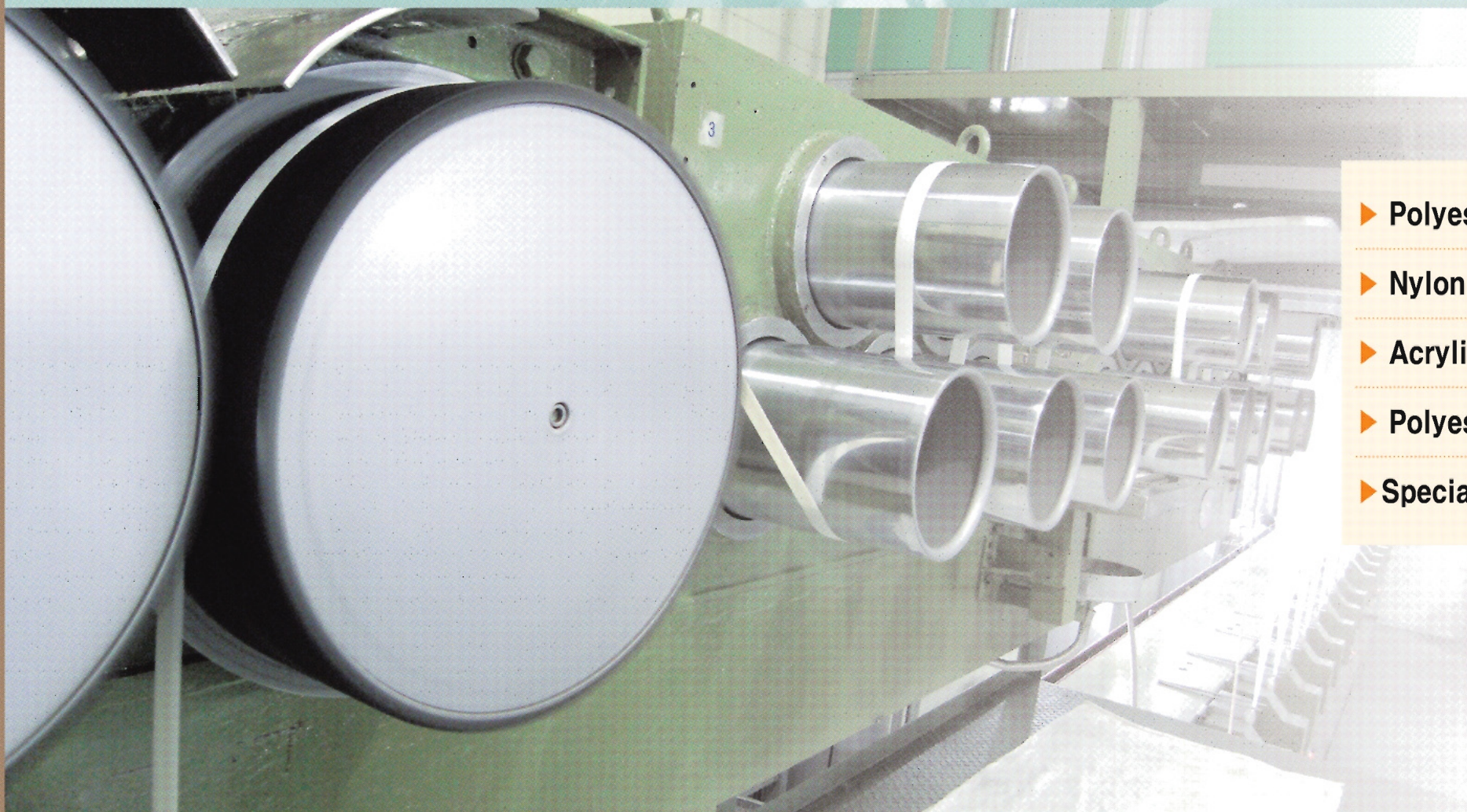
선 포천연예예술인협회 지부장, 한동엽 포천무용협회 지부장, 한대관 포천연극협회 지부장, 홍을표 동농이해조기년사업회 회장, 황행일 전 포천미술협회 지부장, 김광우 포천미술협회 지문위원, 포천예총 유재관 발전위원 등 내·외빈을 비롯해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행사를 가졌다.

임승오 포천미술협회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전시회 준비를 위해 포천미술협회 회원들은 친분이 있는 외부작가와의 교류를 통해, 단단한 쇠를 자르고 돌을 주물러 밝고 아름다운 포천의 풍광을 그려냈다. 친구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작품에서 난(蘭)향이 전 시장에 가득 퍼져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대·내외적인 교류를 통해 선인들의 훌륭한 사상과 정기를 이어받은 포천문화예술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랑 기자 prostar44@gmail.com

# klassiker

www.meist.co.kr



- ▶ Polyester Staple Fiber 1.5de, 3de, 6de, 15de, 20de
- ▶ Nylon Staple Fiber 2de
- ▶ Acrylic Staple fiber (Regular & Flat type)
- ▶ Polyester & Nylon POY, FDY, DTY
- ▶ Speciality Chemical Fibers, Etc. (Carbon, PVA, Aramid)

**MEISTER**  
(주)메이스터 INDUSTRIES INC.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47-2

전화: (031) 532-7401 (대) 팩스: (031) 532-7405

이메일: meists@hotmail.com



# 대진대 교직원·학생 120명 각막 기증

## 각막기증협회에 기증 서약서 전달... 이천수 총장 “시각장애인에 새로운 삶을”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는 지난 6월 22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행복한 대극장에서 열린 제2회 경기공연영상나눔기 '겨울도 안보는 여자' 행사에서 각막기증 서약서 전달식을 가졌다.

대진대 이천수 총장과 교직원 및 학생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각막기증 서약서는 이날 행사를 통해 각막기증 협회로 전달됐다.

이천수 총장은 “이번 기증을 계기로 각계 각층의 관심과 참여로 각막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

아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캠페인과 행사 등을 전개해 각막기증 서약을 점차 확대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교직원들과 학생 기증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시각 장애인들의 축하공연을 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란 잘못된 편견을 없애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한마음 한뜻’ 포천교육발전협의회 출범

### “지역사회가 공감·협력하는 교육정책 발굴하자”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웅)은 기초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재정 확충 및 공동협력사업 발굴,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포천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 21일 발대식을 가졌다.

지역교육발전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는 이재삼 교육의원, 운영창·이강림 도의원, 윤순옥·이부회 포천시위원을 비롯해 지역주민, 학부모, 초·중·고학교장 등 외부위원 13명과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경영지원과장 2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에서는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현안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지역균형발전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여 포천교육발전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철웅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 발족으로 학교 환경개선과 교육여건을 개선을 위한 여력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고 민·관·학의 협력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정책을 발굴해 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포천 여성대학 ‘토피어리 키우기’ 무료특강

### “쉽게 만들어 예쁘게” 조경수 및 장식용으로 ‘인기’

포천시 여성회관은 지난 6월 21일 여성대학 프로그램으로 ‘토피어리 키우기’ 무료특강을 실시했다.

‘토피어리’는 자연 그대로의 식물을 여러 가지 동물 모양으로 자르고 다듬어 보기 좋게 만드는 기술 또는 작품을 말한다.

주로 조경수 및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실내조경 및 실내공기정화, 가습기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므로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수강생들은 다양한 동물모양의 토피어리를 완성하고는 기념촬영을 하는 등 뿌듯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한 수강생은 “생각했던 것보다 만들기 쉽고 모양이 예뻐서 실내 장식용으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며 “식물 키우기도 쉽다고 하니 주변 지인들에게도 만드는 법을 알려줘야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시설관리공단(http://www.pcss.kr) 또는



반월아트홀 홈페이지 ‘http://www.bwart.net’ 교육·문화 카테고리 참조하거나 포천여성회관☎031-540-62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윤중성의 실전 영어 Chapter 4-9

작별할 때

- 행운을 빕니다.  
금락(Good luck.)
-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해바리채 여행(Have a nice trip.)
- 몸 조심하세요  
금태에게로 로부터일후(Good take care of yourself.)
- 남편에게 인부 전해주세요  
김마이베스트트위트 투유어하반  
<Give my best regard to your husband.>
- 부인에게 인부 전해주세요  
① 씨이헬로우 트유어와인후(Say Hello to your wife.)  
② 리멤버 트유어와인후(Remember to your wife.)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맙스, 아일두댓(Thanks, I'll do that.)

문의: 윤 중 성 (017-723-4977)colyoon@nate.com

## 포천 동남고, 대학 입시설명회 가져

### 이치우 비상애듀 평가실장 초빙, 금급증 해소 및 노후우 제공



포천 동남고등학교(교장 조대행)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및 대입전형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 학교 소강당에서 동남고 학부모 및 재학생, 관내 중학교 학생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입시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단순히 대입에 관련된 자료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포천지역의 특성상 교육적 환경을 고려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동남고는 전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 입시정보팀장이자 현 비상애듀 평가실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전문 컨설턴트인 이치우 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제공했다.

특히, 2014년 수능시험 개편 방안과 2012 입시 특징 및 대비 전략,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목표 대학 진학하기 등 풍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포천 청소년문화존 ‘YOUTH ZZANG’ 개막

### 제1회 축제 8백명 참여...9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지난 6월 25일 포천시 청소년문화존 ‘YOUTH ZZANG’ 제1회 축제를 8백여 명의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했다. 태풍이 예보된 곳에도 날씨에도 기꺼이 참여한 청소년들은 청소년문화존 축제에 준비된 각종 공연과 체험활동에 참여해 젊음의 열정을 보여줬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장 송우고등학교 2학년 허수미 학생의 개회 선언과 동시에 울린 포천시립민속예술단 모듬북의 웅장한 북소리는 청소년문화존 개회를 포천시 방방곡곡에 알렸으며, 청소년들이 오늘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공연마당은 문화존에 찾아온 많은 청소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이날 청소년문화존 체험활동장에서는 종이접기, 타투, POP, 풍선아트, 폼나무 만들기 ‘몽(夢)’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천보홀에서는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상영이, 정보화교육장에서는 E-스포츠 ‘카트라이더’ 초동부 예선전이 열렸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 함께 공부해요 163 》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라”  
知過必改  
(알 지, 허물 과, 반드시 필, 고칠 개)

“지과필개(知過必改)”는 “잘못을 알거든 반드시 고치라”는 뜻의 이 말은 천자문의 한 구절입니다.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것은 거울과 역사 그리고 양심입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 일까요?

연못가에 IQ 높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있는 새한마리에게 “야! 새야,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 내가 한쪽 끝을 입에 물고 네가 다른 끝을 물고서 날면 내가 더 높아 날게 되지 않을까? 내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도와주지 않겠니?”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새는 그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게 됐고, 이 광경을 본 다른 개구리들은 감탄을 하면서 “야. 그런 기발한

생각 누가 했니?”하고 물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던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싶었던 개구리는 “누가 하긴 누가해. 내가 했지!”라고 했고, 그 순간 개구리는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내가 했다. 나만이 할 수 있다”하며 자기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자만심이 지나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좋은 점만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 면을 부각시켜보거나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만과 허세에 빠지고 맙니다.

**양 주 승**  
포천시문인협회와 고은포천시문인협회 회장  
포천시문인협회 회장

## 인문분야가 애플리케이션의 원천

### 월빙 부사의(不思議)

154

#### 통섭(統攝)과 통섭(通涉)

요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라고 부르는 응용 프로그램이 각광(脚光)받으면서 통섭(統攝)이라는 말이 대중에게도 화자(膾炙)되고 있다. 통섭이란 말은 미국의 사회생물학 창시자인 에드워드 윌슨이 쓴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를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가 우리말로 ‘지식의 대통합’이라고 번역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통섭은 ‘큰 줄기’라는 뜻의 統과 ‘잡다’ ‘쥐다’라는 뜻의 攝을 합쳐 만든 말로서 ‘큰 줄기를 잡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사전에선 ‘전체를 도맡아 다스린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과 분야를 단순히 넘나들거나 널리 통하는 것 하곤 개념(概念)이 다르다. 넘나들거나 널리 통한다고 할 때는 통섭(通涉)이란 글자를 쓴다.

우리말에는 이처럼 발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 저술의 모티브는 여러 학문 영역을 넘나드는 통섭과 집요한 분석의 힘에서 우러나오는 듯하다.” “21세기형 인재는 경계를 넘나드는 통섭형 인재”와 같은 경우에는 통섭(統涉)을 써야 하고 “IT가 특세한 뒤에는 융복합 기술이 담이며 애플의 혁신 제품들은 통섭형 연구개발의 전법이다”와 같은 경우에는 통섭(統攝)을 써야 한다. 統攝과 統涉을 혼동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일이다.

구별하자면 전자(統攝)는 후자(通涉) 이후에 오는 것이다. 전자의 통섭은 아우르는 것이고 후자의 통섭은 넘나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넘나들어야 한다. 특히 청년시절엔 폭넓은 독서를 해야 하고 여러 분야를 섭렵(涉獵)해야 한다. 독서를 통해 다양(多樣)한 삶, 다양한 풍토(風土), 다양한 사고방식(思考方式)을 접해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 사유체계(思惟體系)를 세워 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분석적(分析的)인 사유체계가 강하고 동양에선 종합적(綜合的)인 사유체계가 강하다.

분석적인 사유체계란 학문 분야를 쪼개어 세분해나가는 것이다. 세분된 전문 분야만을 파고 드는 것이다. 좁고 깊게 보는 것이다. 물론 장단점(長短點)이 있다. 자신이 보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박사(博士)소리를 듣지만 그 영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문외한(門外漢)이 되고 만다. 인접(隣接)학문에 눈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우물만 댔기 때문이다.

때로는 옆의 우물도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 봐야 한다.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야 한다. 또 그 연유가 무엇인지 궁구(窮究)해야 한다. 그래서 통섭(統攝)이란 말이 생겨난 것이다.

통섭(統攝)한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종합적

으로 본다는 것은 넓고 깊게 본다는 것이다. 좁게 자기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다. 넓게 깊게 타 분야도 보는 것이다. 인접학문에도 눈을 돌리고 그 상관관계(相關關係)를 살피는 것이다.

외통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리저리 넘나들면서 통섭적(統涉的)으로만 보던 것을 집약하여 상호보완적(相互補充的)으로 보는 것이다. 무언가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다. 한 마디로 통섭(統攝)하는 것이다. 통섭적으로 관찰하고 새로운 것을 창안(創案)해내는 것이다.

좋은 다기(茶器)를 만들려면 차(茶)도 알아야 하듯이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창안해내려면 하드웨어의 기능(機能)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활용(活用)도 잘 알아야 한다. 사이언스(science)뿐 아니라 인문분야(人文分野)도 알아야 한다. 인문분야에서 아이디어가 샘솟기 때문이다. 인문분야가 애플리케이션의 원천(源泉)이자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호핑(hopping) 점핑(jumping)만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 보면서 관조(觀照)할 줄 알아야 한다. 상관관계를 살피고 상호보완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는 지혜(智慧)를 발휘해야 한다. 하드웨어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統涉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統攝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이 규 임**  
인문학정책학의 명예회장

## 성숙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 52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

### 점차 독립적으로 키우려는 태도

앞서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녀와의 대화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칭찬과 비판의 방법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아동들에게 책임감과 독립심을 향상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학자 ‘Ginott’는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에 부모가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한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주도록 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아동으로 성장하고 스스로 독립심을 갖게 된다.

자녀의 책임감과 독립심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방법에서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항은 가족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 음식과 관련된 경우에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여 하며 다양한 음식가운데 자녀의 식성에 맞게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몇몇의 부모는 아무음식이나 먹지 못하고 몇 가지의 강요하는 음식이 요구하기도 한다. 여기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어느 하나를 택하는 몫은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자녀에게 필요한 옷을 사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녀에게 필요한 옷인지 판단해주고 가격의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나 모양이나 색깔 등의 선택은 자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바람직한 부모는 훌륭한 교사처럼 점차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부모에게 의지하고 도움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기보다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점차 독립적으로 키우려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들은 보다 책임감 있고 독립심이 향상된다.

**문 은 주**  
(사)가족복지지원사업  
부산 미래인재발달교육센터 소장  
(www.miroe365.com, 031-542-5230)

## ‘사랑과 우정이 함께 하는 희망캠프’

### 포천 특수·일반학급 통합캠프

포천교육지원청(이철웅 교육장)은 지난 6월 21일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학생들이 함께하는 ‘희망캠프’를 가졌다. 이번 캠프의 개소식은 포천 관인면에 위치한 숲길 팜스테이마을에서 열렸다.

이철웅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학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희망캠프를 통해 서로 도와주고 협동하면서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친구를 더욱 사랑하는 날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40여 명의 학생들과 특수교사, 보조원 등 318명이 A와 B조로 나누어 포천시 농촌체험과 한탄강 레프팅이 가졌다. 숲길 팜스테이마을에서는 친구와 함께 반달곰 인절미 먹이기, 밀가루 반죽하여 자장면 뽑기, 콩을 갈아 삶은 두부를 으개

를 통해 서로 도와주고 협동하면서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친구를 더욱 사랑하는 날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40여 명의 학생들과 특수교사, 보조원 등 318명이 A와 B조로 나누어 포천시 농촌체험과 한탄강 레프팅이 가졌다. 숲길 팜스테이마을에서는 친구와 함께 반달곰 인절미 먹이기, 밀가루 반죽하여 자장면 뽑기, 콩을 갈아 삶은 두부를 으개

## 초대 漢詩 初夏登寒碧樓(초하등한벽루)

提川勝地暮登樓(제천승지도등루) 望月山城往事悠(망월산성왕사유)  
제천은 이름난 승지인데 저녁때 한벽루에 오르니, 망월산성의 지나간 일들이 아득 하구나.

畫舫綉紵千里外(화방현빈천리외) 閨閣經誦五更頭(여영경송오경두)  
화방의 현란함은 천리 밖까지 빛나고, 여열에서는 경서 읽는 소리가 오경까지 들리네.

賞春絕景無窮事(상춘절경무궁사) 灌溉南江不盡流(관개남강무진류)  
제천은 이름난 승지인데 저녁때 한벽루에 오르니, 망월산성의 지나간 일들이 아득 하구나.

提川勝地暮登樓(제천승지도등루) 望月山城往事悠(망월산성왕사유)  
제천의 절경들이 많아서 탐방하는 일 끝이 없었고, 남강물은 르름이 넘쳐하여 제천 영봉의 젖줄이 되고있네.

天賦資源開發促(천부자원개발촉) 惟祈福祉自成收(유기복지자성수)  
하늘이 내린 관권자원 개발을 촉진하여, 제천의 복지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오직 빌노라.

**錦峯 楊載昌**  
抱川漢詩會 會員



## ‘동물원’ 콘서트 ‘호응’ ... 씬지공연 ‘활짝’

포천 반월아트홀 야외무대 & 대공연장... 매주 목요일 9월까지 공연

지난 6월 23일 포천 반월아트홀에서는 2011년 씬지공연이 활짝 열렸다. 장마의 시작과 함께 문을 열어준 이번 씬지공연은 비로 인해 야외무대에서 대공연장으로 장소를 이동해 진행했다. 첫 번째 무대는 386세대를 대표하는 그룹 ‘동물원’. 그들의 노래는 추억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콘서트가 되었다.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도 많은 시민들은 ‘동물원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반월아트홀을 찾았다. 특히 가족이 함께 관람한 것 이외에도, 씬지공연의 의도에 맞게 어린이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관람객이 모습을 보였다.

‘동물원’은 대표곡인 ‘날 사랑하겠어’, ‘변해가네’, ‘거리에서’ 등 다양한 노래로 추억 속에 빠져들도록 감미롭게 노래를 불렀고 관람객들은 시종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공연에 매료되었다.

‘동물원’은 ‘우리는 미남이다’ 등 노래를 부르면서 재미난 입담과 점프 퍼포먼스, 작은 율동 등의 무대매너를 보이자 시민들은 호응의 박수를 보냈다.

밤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라고 소개하며 부르던 ‘작아지는 꿈’과 팀원 유준열의 사연을 담은 노래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을 부를 때는 팔을 들어 좌우로 움직이는 율동을 하며 노래의 맛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졌다.

엔딩곡으로 ‘시칠리아 지하철역에서’를 마치자 관람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앵콜을 신청했고 ‘동물원’은 ‘나의 노래’, ‘한곡 더’, ‘한곡 더’를 외치며 감동의 호응을 표출하자 다시 앵콜송을 한 번 더 부르며 씬지공연을 찾아준 관람객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씬지공연의 시작은 가수와 관람객이 하나가 된 진정한 콘서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던 공연으로 공연장을 빠져나온 관람객들은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 공연이었다’는 평이 주류였다.

‘동물원 콘서트’로 포문을 연 반월아트홀의 씬지공연은 오는 9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야외무대에서 무료관람으로 진행되며, 우천시에서는 소공연장에서 진행한다. 공연에 관한 문의는 아트홀(☎031-540-6213~4, http://www.bwart.net/)로 하면 된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 달인 축구 ‘하이킥’ 포천 반월아트홀 뜬다

7월 7일~9일...포천시시설관리공단 개청 2주년 기념공연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은 개청 2주년을 기념해 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포천 반월아트홀에서 관람료 전석 5천원에 스포츠 퍼포먼스 ‘하이킥’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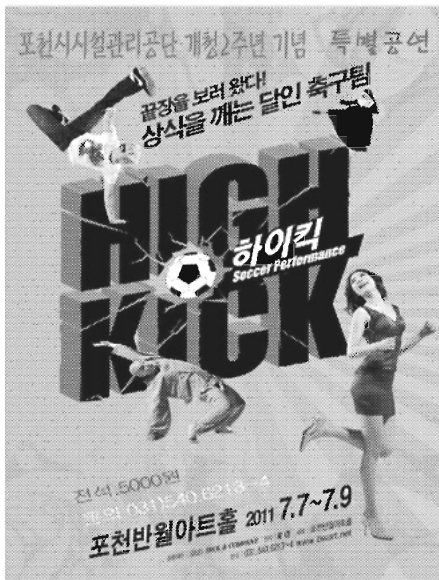
‘하이킥’은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나 게나 사랑받는 스포츠를 소재로 만들어진 ‘넌버벌 퍼포먼스’로 파워풀한 슈팅에 마임과 비보잉, 아크로바틱 등의 액션스릴이 접목된 종합예술이다. 또한 신나는 리듬감과 경쾌한 멜로디가 극과 어우러져 긴장감을 물론, 역동적인 액션기술에 박진감을 더했기에 보고, 듣는 즐거움

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이번 공연 뿐만 아니라 오는 7월 15일 ‘윤형주 & 김세환의 우리들의 이야기’, ‘일루전 착시아트 체험전’도 선보일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 속에 신중하고 준비한 이번 공연으로 많은 시민들이 2011년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타 공연에 관한 문의는 반월아트홀(☎031-540-6213~4, http://www.bwart.net/)로 하면 된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포천 중심에서 ‘오가리 가노농악’ 울린다

전국대회 장원 수상 기념... 시청 앞마당에서 신명나는 무대

(사)한국농악보존협회 포천시지부(대표 한동엽)의 포천 오가리 가노농악(박민준 외 47명)의 제3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농악부분 ‘장원’ 수상 기념 축하공연이 지난 6월 20일 포천시청 본관 앞마당에서 펼쳐졌다.

이날 공연은 서장원 포천시장, 시민, 공무원, 각계 문화에 숏단제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명나고 흥겨운 무대가 연출됐다.

‘오가리 가노농악’은 3백여 년전 조선시대 영평현(영종면·영북면·창수면·일동면·이동면 일대에 있던 옛 고을)에서 전해져 내려온 전통민속놀이로 창수면 오가리에서 특히 성행했다. 특히 박민준의 47명의 농악단은 오가리 가노농악이 지닌 흥과 가락을 완벽하게 재현해 지역 우수 문화유산을 훌륭하게 복원해 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땀으로 빛진 단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잊혀져가는 가노농악을 훌륭하게 복원할 수 있었고 우리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국에 알릴 수 있게 됐다”며 격려했다.

한편, 축하공연에 앞서 서장원 포천시장은 집무실에서 포천 오가리 가노농악을 지도한 정인상 한국농악보존회 이사장과 가노농악 복원을 위해 기여한 송성영 창수면 이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사)한국농악보존회 포천시지부는 전



주대사습놀이 장원에 대한 시상금 1천만원 중 1백만원을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성금으로 기부해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선조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로서 포천 오가리 가노농악이 전승·발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동시

냄새 맡는 파리

모기장속에  
말리고 있는 생선,

어떻게 먹지?

문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지만

어디에도 문은 없어  
냄새만 맡고 있는 파리.

- 맛있는 고기 한 점  
꼭 먹고 싶은데...



전은일  
시인  
전외초등학교 교장

##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道예절교육연수원 특강

유·초·중등교감 1백명 대상 ‘포천의 역사·문화 이야기’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지난 6월 22일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위치한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에서 2011년도 교육전문직 예절 인성 교육과정 유·초·중등교감 1백여 명을 대상으로 ‘포천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만구 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포천의 연혁, 인문환경과 역사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근 본으로 하고 청빈과 검약을 최대의 덕목으로 삼는 조선조의 선비정신이야말로 조선왕조 519년을 지탱해 온 정신적인 지

주”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비정신에 투철했던 백사 이항복 선생, 한을 이덕형 선생, 용주 조정 선생, 유응부 장군, 약봉 서성 선생, 봉래 양사언 선생, 책재 이서구 선생 등 포천의 선현 및 문화재, 포천의 역사문화 이야기를 알찬 강의를 펼쳤다. 연수원 한 관계자는 “오늘 특강 참석자들이 이만구 원장님의 조선의 선비정신과 포천의 역사·문화에 대한 다각적 설명을 통해 포천의 문화를 깊게 이해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박정근의 문화에세이 (48)

### 장자마을 사람들의 해맑은 미소

며칠 전 장자마을 사람들에게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장자마을이 포천 신북면에 위치한 완치된 한센병 환자 정착촌이란 사실도 처음 알았다. 우리 사회에는 오래 동안 그 병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병과 관련된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왔다. 필자도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나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그들의 만남을 의식적으로만 만들어왔다. 그것은 사람의 가치가 어찌 외형적인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도덕적인 회의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필자는 쏟아지는 비 때문에 겨우 시간에 맞추어 주차하는 순간 격정스럽게 기다리는 담당자들을 만났다. 산길을 돌아 깊숙한 곳에 이런 커다란 마을이 있다니 다소 어리둥절한 심정으로 강연장으로 들어갔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편견 어린 격정을 그들을 만나는 순간 사라지고 속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우선 학습에 임하는 그들의 표정이나 자세가 매우 적극적이고 기대감에 차서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의 병은 완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겉모습에 상처가 조금씩 드러나 있었지만 강의에 임하는 자세나 이해는 정상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의 자만심으로 감사에 의식이나 경계심을 보이는 정상인들보다 따뜻한 눈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마음 속 긴장을 풀어버릴 수 있었다.

아이러nick하게도 나를 당혹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나후된 강의 시스템이었다. 강의진행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한 담당자의 말과는 달리 강의실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다. 세익스피어작품의 동영

상을 사용하려고 했던 필자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고 말았다. 필자는 별 수 없이 세익스피어 비극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면마다 필요한 대사를 실감나게 처리하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마치 배우처럼 액션을 곁들여 보여주었다. 그들은 고맙게도 열성적인 관객이 되어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였다. 어느덧 그들과 필자는 관객과 배우로서 감정이입이 되어 깊은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세익스피어의 사대비극 『햄릿』을 강의하면서 클리우디우스가 햄릿의 부왕을 귀국당에 독약을 부어 시해하는 장면이나 유령이 되어 나타나는 장면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수강자들은 모두 실제 연극이라도 보는 듯 상상력을 발휘하며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또한 햄릿이 레이티스와 의 펜싱시합에서 독을 묻힌 칼에 찔리는 장면에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보이는 섬세한 감수성도 보여주었다. 그들은 정상인과 똑같이 문학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감수성을 소유한 자들을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미 한센병이 완치된 정상인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외부사회가 그들에게 보이는 부정적 편견에 의해서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물론 한센 병에 대한 전염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하겠지만 완치된 자들이 사회 속에서 당당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옛날 그 병의 환자에 대한 구전적 루머들은 어린이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러나 첨단 의학이 발달한 선진국 한국에서 아직도 루머에 의한 편견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후진성을



박정근  
대진대 교수, 본지 칼럼위원장  
이해조문학회 회장  
jpkpark@hanmail.net

반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사회의 외딴 정착촌에서만 생산 활동이나 주거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강의 시간에 밝은 웃음을 보여주며 밝은 웃음을 즐기는 그들의 정상적인 삶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도가 그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한 것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하고 싶다. 기왕에 그들에게 학문과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면 시내의 복지시설 못지않게 현대적 시설을 갖추어주기 바란다.

필자는 강의를 마치고 그들의 적극적인 수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명태”를 노래선물로 불러주었다. 그들의 큰 박수소리를 뒤로하고 떠나면서 편견으로 가득 찬 사회의 냉대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였던 한하운 시인의 “보리피리”를 머리에 떠올리며 이별의 손을 흔들었다.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e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봄 청산 아린 때 그리워  
피~~~e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e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그 산하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e 날리리

## 갱년기 극복하려면 자신감을 가져라

이신경 원장, 포천 여성대학 ‘갱년기 극복’ 무료 강연



포천 여성대학은 지난 6월 21일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울증 예방교육 무료 강연을 실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은 중년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인 갱년기의 증상을 알아보고, 그 예방법 및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강으로, 포천시 정신보건센터의 협조로 포천이신경정신과 이신경 원장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신경 원장은 “갱년기는 혼자서 극복하기 보다는 주변 친구의 도움이나 다양한 문화재활동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관리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병만 기자 jpk61@paran.com

## 포천문화원 실버악단, 일동노인대학서 문화나눔사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 포천사랑 실버악단 문화나눔 봉사단은 지난 6월 27일 일동노인대학에서 수강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나눔 봉사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에는 양운태 일동노인대학장 및 포천문화원 문화나눔 봉사단원을 비롯하여 일동노인대학 수강생 어르신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포천사랑 실버악단은 이날 ‘내 마음 별과같이’, ‘개똥벌레’, ‘삼포로 가는 길’, ‘섬바다를 생각’, ‘울고있는 박달재’ 등을 연주했고, 가야금병창, 대금과 피리연주, 전통무용 성주풀이, 양산도과 뱃노래 민요 등을 선보이며 이날 모인 어르신들에게 모처럼 문화의 즐거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포천문화원 관계자는 “포천사랑 실버악단 문화나눔 봉사단은 앞으로도 노인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 문화축제에 참가해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혜택 나눔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이상실의 논술교실 <18>

### 제18강 - 논술 도우미 노트



이상실  
소설가, 논술강사  
leessi21@hanmail.net

1. 논술 시험지를 받아들면 우선 ‘주의 사항’을 잘 확인하고, 무엇에 대한 답을 쓰라는 것인지 문제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짧은 글에서는 글의 전체적인 형식보다는 논리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문장은 호응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긴 문장은 중간에 한 번 끊어주는 것이 좋다.

4.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적인 서술보다,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이루는 내용의 전개가 필요하다.

5. 논제를 다시 언급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쓰는 등의 군더더기가 없어야 한다.

6. 찬·반 논쟁형은 상대의 의견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8. 신문을 활용하면 논술을 잘 할 수 있다. ‘반값 등록금’ ‘전관예우’ ‘한류’ 등의 시사이슈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면 논조가 대립되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사설이나 칼럼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대비한 쟁점기사, 기획특집 기사를 꾸준히 읽도록 한다. 이는 비판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신문에는 각종 사회현상이 실려 있으므로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사 주간지나 월간 교양지도 읽기를 바란다.

9. 주어진 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고민하고 자기만의 개념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사이슈나 새로운 용어를 접할 때마다 그것들을 노트에 잘 정리해서 익히는 습관을 가져라.

10. 단기간에 모든 것을 성취할 수는 없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다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깊이 있는 독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11. 논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원고지에 직접 써보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쓰는 요령만 머릿속에 익혀두어서는 발단이 없다. 시간을 측정해 보고 자신이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점 혹은 시행

착오를 거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논술점수는 수험생이 얼마나 주어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고민했는가와 비례한다. 그러므로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는 자세를 잊지 말기를.

13. 모의논술, 논술경시대회, 실전논술 등 시험장에서 글을 직접 써보는 경험을 얻는다면 다음에 쓰는 논술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14.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논술시험을 치르기 전에 최근 2~3년 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나 가장 최근의 모의논술 시험을 풀어보고 시험에 임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15. 논술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자신의 글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전문가에게 몇 회에 걸쳐 첨삭을 받도록 한다. 어색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교정 받는 등 피드백이 이루어질 때 실력향상을 꾀할 수 있다.

16. 논술의 지문이 수능의 지문보다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제시문을 대충 때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첫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꼼꼼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 특별기고

## 청소년들이여! 스스로 일어서라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한다. 어떤 이는 포식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어떤 이는 사랑을 베풀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이를 가운데 누가 진정한 행복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청소년들이여! 이제는 도움을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라.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이를 책임성 있는 인간이라고 부른다. 요즘을 우리 세대를 보면 너무 의타적인 상황이 많다. 초등학교 시절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도 좋겠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부모의 도움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외국 유학시절에 그곳의 대학생들은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고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유학한 한국에서 온 학생들만이 부모들한테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던 기억이 난다.

왜 대학생의 생활비까지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방학 중에 그 나라 곳곳을 여행하면서 여행까지 부모들에게 의지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는 그 나라 대학생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 일어서는 훈련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은 무한경쟁의 시대로 치달고 있다. 혹자는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일어서면 되지 않겠는가? 반문하는 이도 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이다. 독립심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험하여야지 이성으로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남들보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러려면 스스로 일어서는 훈련을 하여 주기 바란다.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가? 그러려면 우선 자신과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여 주기 바란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쌓아가기 바란다.

스스로 체력을 기르고,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는 스스로 인(人)이 되기를 바란다. 주변에 나약한 친구가 있으면 스스로 도와라. 그러면 나중에 자신을 돕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나아간 마음이 든다면 스스로 강해지도록 스스로에게 노력하기 바란다. 자신이 나약한 사람은 절대 남에게 베풀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시대는 불확실한 사회라고 한다.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지진에 의한 쓰나미 현상을 보지 않았는가? 우리라고 항상 안전한 것을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유대인의 성전인 '탈무드'에 의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자서 스스로가 잡아먹는 법을 가르치라고 설교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이 잘못된 일이 없는 데도 옆 사람 때문에 고초를 겪거나 불행에 당하는 일이 자주 있는 편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떠한 시련을 겪을지 모르는 것이 인간사인 것이다. 자신이 어려운 처지가 된다면 스스로 일어서는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

작은 일에 쉽게 낙망하고 견디기 어려워한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겠느냐? 아니다. 내 삶을 바로 영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청소년기의 여러분들의 의무이다. 비가 온 후의 태양은 더 빛나는 법이고, 역경을 이겨낸 삶이 더욱 가치 있는 삶인 것이다.

특히 청년 실업이 증가하여 일지리를 찾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현상에서 자신의 실형하여 보고 적음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힘들더라도 보람 있는 일을 찾도록 권하고 싶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법대를 졸업한 두 사람이 청소원을 자청하여 근무한 적이 있어 우리나라 신문에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이 세상은 모두 쉽고 편한 일, 그리고 권력형 일에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부는 청소부 대로 우리 사회를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는 보람있는 일이다. 서로 보람 있는 일을 찾도록 노력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청년실업을 극복해 보지 않았겠는가?

연초에 어느 종교지도자가 "작금의 방편에 의탁한 '질러가는 길'만 선호하는 것은 손쉬운 지름길만 찾게 됐다"면서 "치루친 이는 자신을 바로 잡아 원만한을 이루도록 하고 막히고 걸린 이들은 대승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여!! 희망은 높고 더 험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바란다. 내 삶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일어나라. 그리고 이 사회의 보람 있는 일을 찾는 선각자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철용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학박사

추천! ●●●  
이야기 한마당

중국의 고대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의 책에 '병(病)에는 다섯 가지 못 고칠 병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만해서 도리를 무시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몸을 해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병입니다. 재물은 아무리 가득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고, 결국은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철학이 타당치 못한 병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불치병(不治病)

넷째는, 기운이 불균형한 병이라고 합니다. 깊은 병이 얼굴에 나타나면, 이미 때가 늦어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무당과 박수의 말을 의사의 말보다 더 믿는 병입니다. 신비로운 체험만을 좇는 사람은 그 병을 고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병의 원인에는 잘못된 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만이 옳다는 생각과 행동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고, 고집과 독선은 능력 있는 사람의 소양

으로 포장되곤 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항상 옳고 정당한 것인가를 묻고 또 묻는 지혜, 이기적인 현대 사회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보용

포천신문 전문위원  
포천신문신약외과 회장  
leeuwaking@naver.com

## 임희동 판사의 Master Key (14)

## ■ &lt;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gt;를 읽고

## 현실도 그림과 같이 바꿀 수 있다

● <60>

이 우주의 무한한 힘은 장엄하고도 요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은밀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제시한 분들이 예수님과 석가모니다. 이 힘을 이용하여 이 세상을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가르침이 그 분들의 종교다. 이것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이것은 과학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 뿌린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석가모니의 연기법-인과법-인연법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 우주의 무한한 힘은 이렇게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니, 이 법칙을 알고 전지전능한 힘을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과학입니다.

● <61>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그것이 좋은 것든 나쁜 것든, 모두 자신이 불러온 것이다. 나쁜 상황은 지혜의 부족으로 나쁜 것을 생각한 결과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주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모르는 탓이다.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탐하여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은 부족한 생각이기 때문에 부족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기가 가진 것에만 집착하여 매달리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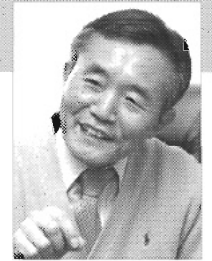
부족한 현실을 타파할 수 없다. 가장 큰 행복은 우주마음을 알아서 그 우주마음과 조화를 이루고, 우주마음에 협력하는 것이다. 우주마음의 핵은 같은 것끼리 모인다는 것이다. 금은 금 끼리, 은은 은끼리, 철은 철끼리 모여 광산을 이룬다.

● <62>

우주만물에는 생각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이 생각에 생명력을 주어서 싹을 틔우는 것이 끌어당김-사랑이다. 말은 생각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이 말대로 되는 수가 많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삶이 건설적이고 조화롭게 된다. 글도 기록된 말이다.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도 있다. 행동도 생각이 유발한다. 행동도 부드럽고 착해야 삶이 부드럽고 선하게 풀린다. 마음먹기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 신선사(眞仙書判)이라고 하였다. 말과 문장을 어떻게 세우나? 이것이 문제다.

● <63>

우주만물에 생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주마음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생각을 내어서 우주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임희동

판사, 전 포천시법원장

만물의 하나인 우리도 우주마음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자기와 같게 만든 하나의 통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생각이라는 것이 모여서 의식이 되는데, 우리는 이 의식에 수없는 사전을 찍고 있으며, 이 찍힌 사진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현실화 된다. 그래서 상상에 의한 영상이 중요한 이유다. 아름다운 꿈-꿈으로 꿈-건강한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운명이란 자기가 마음에 그린 그림에 불과하다.

● <64>

그림은 지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 현실도 그림과 같이 바꿀 수가 있다. 그림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현상보다도 현실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다. 물론 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자기이듯이 자기 현실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다. 그림도 구상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색상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듯이 인생도 그 사람이 품은 이상과 영상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생각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 고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상을 가지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것이 넉넉한 삶이다.

## 이희용 칼럼

## 포천시장 업무 추진비와 고통 분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기 시작한 기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러 분야에서 예산집행과 관련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관공비와 공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시민단체나 언론을 중심으로 관공비나 기초자치단체장의 관공비 사용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지자체는 무엇이 땀땀하지 못한지 시민들의 요구에 그 내역의 공개를 꺼리거나 밝히지 않으려는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법적인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결과는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의무가 당한 것임을 법원은 사건마다 명시하고 있다.

원래 자치단체장 관공비는 애초에 관공비와 정보비로 편성되었던 명칭이 1999년부터 특수 활동비를 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켜 지출용도가 분명치 않은 사실상 기밀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장이나 보조기관의 직무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사나 시책사업, 특수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비용이지만, 대부분 만찬회나 간담회 또는 음식접 식대 같은 소모성 행사가 주로 쓰이기 때로는 주민과 단체관계에 있는 사업에나 시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용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보통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이 계상되는데, 여기서 하위급 공무원의 복지개념으로 반영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실·과·소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잡비의 개념으로 편성되는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장에 의해 자유로운 집행이 가능하여 대부분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계획과 지출 품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무계획적으로 사용된 것이 문제가 된 때도 많았다. 그러나 예산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지자체장에 대해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은 그저 바를 수밖에 없는 황폐한 현실에 직면

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시민단체나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조례로 제정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이나 전문가가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거품예산이나 낭비예산 그리고 전지성예산 등을 가려내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변화의 추세인 것이다.

그럼 여기서 2011년 6월 3일 포천시청 기획예산과가 공개한 회계예산중에서 자치행정과 예산서에서 업무추진비를 확인해보자. 포천시의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어느 곳과 닮았는지 해마다 증액되어, 금년 시책업무추진비 기정액이 1억6천2백만원인데, 세부항목으로 시장 9천1백만원, 부시장 4천만원, 총무국장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 1천5백만원, 민군협력자문관 8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총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정액인 1억3천860만원 중에서, 시장 7천920만원, 부시장 5천610만원, 총무국장 330만원으로 잡혀 있다.

이런 자료들로부터 예산상의 명목을 근거로 임기 4년간 사용될 수 있는 시장 업무추진비가 7억 원에 이르고 있고, 각 부서나 보조기관에서 명목이 정해지지 않은 시책 업무추진비 등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을 보태다면 그 금액이 훨씬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부시장 대행 체제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불명확한 식사절대와 기관이나 단체와의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논란을 일으켜 물의를 빚는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 성남시장은 시장실로 시업방식과 관련한 결재를 바라며 시청에 매달리려는 면담자가 돈 봉투를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실 천정에 감시카메라에 녹음장치까지 갖추어 면담장면과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했다고 한다.

물론 시장 사무실이 아닌 은밀한 장소에서 돈을 받는다면 더욱 안전한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구속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마음자세로 시청에 임하는



이희용

광통술 시민 연극인  
컴퓨터, 한국스카우트  
지부북부연경 감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heeyong1@hanmail.net

나를 가능할 수 있는 신선한 퍼포먼스로 주위에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이 이채롭기도 하다.

아무튼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거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가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범위를 명확히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절실하게 인식하고 실행에 옮겨가고 있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100만원도 시보조금 카드로 사용 후 영수증을 부착하여 관련 결산 보고를 하라고 온갖 지시와 관여 그리고 교육까지 실시하는데, 정작 시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거액의 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중심 주민자치"라는 행정표어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작년에는 강원도지사가 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주민들과의 교통분담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30% 삭감 편성하면서, 주민 일자리 창출과 서민 복지사업의 지원으로 활용하기로 하여 일회성이나 소모성 행사경비를 줄여서 지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여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지금 포천에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시민단체도 없을뿐더러 지방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이런 때 평소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을 실천하는 본보기로 포천시장이 증액 편성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스스로 공개하고, 그중 일정금액을 반납하거나 삭감하면 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시민과 교통을 분담하겠다는 소신을 발표한다면, 모두의 칭찬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관계자들의 현명한 숙고와 고기를 바란다.

목회  
단상

##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소풍센터에 갔다. 아들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서 즐거움 듯이 아빠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아버지는 이것저것 살펴 보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골랐다. 그리고는 아이가 들고 있는 장바구니에 넣었다.

처음에는 거뼼했다. 그런데 여러 개를 집어넣으니가 점점 아들이 들고 있는 장바구니가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다. 아들은 무거워지면서도 열심히 장바구니를 들고 아버지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앞에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던 한 여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속 좁은 남자지. 자기 아내에게 저렇게 무거운 짐을 들게 하더니..."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

에게 이렇게 물었다.

"얘야, 너 그 짐 무겁지 않니?"

그러자 꼬마가 뜻밖에 대답을 했다.

"아니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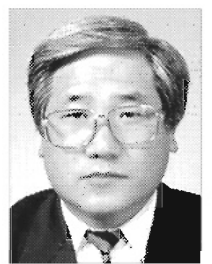
큼 들 수 있는지 제가 얼마큼 무게를

감당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빠는 언제나 제가 들 수 있는 만큼만 넣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다.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아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감당할만한 시험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그마한 시험에도 이기지 못하고 불



김창성

내촌교회교회 목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kcs4511@hanmail.net

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도 더 심한 시험도 잘 견뎌내고 이긴 것을 생각 하자. 그래서 성서는 우리들에게 이런말씀으로 권면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 기고

## 빛쟁이의 기도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해보면 사기사건에 경우 70~80%가 금전거래 문제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애당초 돈을 값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 갚지 않으며, 심한 경우는 채권자에게 오히려 또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의 이자까지 합쳐서 주겠다고 하면서 7~8회나 같은 거짓말로 사기를 친 경우를 볼 수 있다.

선량한 사람들은 남에게 빚을 지고 사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잠도 못하고 패들이라도 팔아서 우선 빚부터 갚고 편히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기꾼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빚 걱정은 커녕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하면 오히려 "마음대로 해라. 날 고소하여 내가 고소소에 가면 누가 네 빚을 갚나?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라도 네 빚을 갚는다"고 말도 안 되는 공감을 친다.

그런데 6월을 맞으며 우리는 국가와 선열들에게 큰 빚을 지고도 너무나 태연히 세월을 보내면서 갈등과 분쟁을

하는 일이 많아서 자성하는 마음으로 한번 회고해 본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애국지사들은 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삶을 애는 눈보라 속의 만주 벌판에서, 시베리아에서, 먼 이국땅에서, 적지인 일본땅과 나라 안에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서 산화했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나고 없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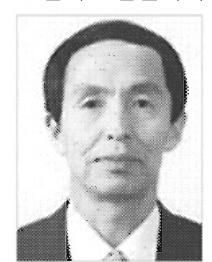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에게 갚기 힘든 큰 빚을 지고도 국가를 배반하고 나라의 명예를 더럽히며 국위를 문란케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보다 더 큰 매국적 빛쟁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리고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괴의 불법남침으로 국가가 종전통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의 하늘과 바다에서, 산골짜기, 수몰 속에서 청춘을 불사르고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령들에게 진 큰 빚은 또 어떻게 갚아야만 할 지 고개를 쳐들 수 없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에게 오늘의 우리들은 큰 빚쟁

이로서 국가나 사회에 죄를 짓거나 순국선열에게 배운망덕한 일을 하지 않는 지 깊이 반성하고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태극기 앞에 서듯, 웃음을 바로 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국가에 진 빚, 순국선열에게 진 빚, 그리고 국민 된 도리를 제대로 못해진 빚을 갚는 길은 세계평화를 위한 헌신,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서 남북통일의 책임과 의무 완수 등 지역사회와 소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바르게 사는 신랑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보훈현충의 달'을 맞아 큰 빚을 진 죄인의 한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깊은 반성의 기도를 드린다. "선열이시여, 용서하십시오"



조수기

의정부병원원장



# 포천시, 홍삼추 보급 시범사업 추진

##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하수 이용 냉난방시스템 적극 도입



포천시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맞추어 현재 재배되고 있는 삼 채소류와는 다른 홍삼추 재배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자재와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개발한 지하수이용 냉

난방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여름철 고온기에도 고품질의 신선채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삼 채소류 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홍삼추를 영암본석한 결과,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칼슘이 삼추에 비해 6배 가량 많고, 면역력 강화에 좋은 철분도 삼추에 비해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산화물질인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티아민(비타민 B)도 풍부해 피부미용 효과가 아주 좋으며, 항암 효소의 생성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아스코르브산의 경우 삼추에 비해 무려 14배 가량 풍부하다. 아울러 중금속 배출효과가 아주

우수한 아연과 마그네슘성분이 삼추와 홍삼추에서 삼추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삼추는 언제 파종하더라도 계절에 관계없이 빨간 잎이 전개되는 기능성 삼채소로 배추신장성이 좋고 그 활용가치가 높아 요즘 각광받고 있다. 삼으로 이용시 케일이 나 삼배추와 달리 꽃내와 지린내가 전혀 없고 단맛과 새콤달콤한 향기가 나며 입안에서 씹었을 경우 그대로 녹아들어 우리 몸에 흡수가 매우 빠르다. 이용규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기능성 신선채소 재배에 기술보급과 홍보에 힘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포천 군내면·포천동, 농업인의 집 현판식

유기문 군내면장 “농업발전 위한 모태 되길”... 김용기 포천동장 “의견교환과 기술교환 계기”



포천시 군내면은 지난 6월 20일 농업인 단체 임·회원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군내면 농업인의 집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유기문 군내면장, 양인환 농촌지도자회장, 차면현 농업경영인회장, 조병애 생활개선회장, 이상준 포천시농업기

술센터 농업경영팀장 등이 참석했다. 군내면 농업인의 집은 지난 4월 군내지소가 농업기술센터로 편입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상호 교류 장소로 활용하게 됐다. 유 면장은 “군내면 농업인의 집이 농업경영을 업그레이드 시

킬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더 나아가 포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모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면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3개 농업인 단체의 자체회의, 농업경영 노하우 토의 등 농업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 후원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동 농업인단체는 지난 6월 22일 기존 농업기술센터 포천지소 사무실을 농업인의 발전을 위한 농업인의 집으로 활용하고자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현판식, 기념촬영, 농업인의 집 발전기원, 다과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용기 포천동장, 이운영 주민자치위원장, 정명진 통장협의회회장, 남기영 노인회장, 최철수 농촌지도자회장, 이상덕 4H연맹회장, 정해원 농업경영인회장, 농업기술센터 심진섭 팀장 및 단체회원 40여 명 참석했다. 이상덕 4H연맹 회장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인이 다른 읍·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들이 모여 각종 회의와 기술 정보 공유를 통해 포천동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기 포천동장은 “농업인 및 농업단체가 언제든지 농업인의 집을 이용해 의견교환과 기술교환을 해 농업발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포천 소홀읍기업인협의회, 6월 임원회의

김지만 한화증권 포천지점장, 소홀도서관서 특강

### 내달 1주년... “초심 ‘상생과 발전’ 잃지 말자”

### ‘2011 목돈만들기 내게 맞는 금융상품 찾기’

포천시 소홀읍기업인협의회(회장 이상갑 꽃생식품 대표)는 지난 6월 21일 임원 26명이 모인 가운데 6월중 임원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창립한 협의회가 오는 7월 6일 1주년이 됨에 따라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창립행사 준비에 내실을 기하고, 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추가 선정된 임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상갑 회장은 “기업인협의회를 기업인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 기업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눔의 문화 확



신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뜻에서 창립했다”며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는 기업인 협의회 회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포천 소홀도서관에서는 지난 6월 22일 ‘2011 목돈만들기 내게 맞는 금융상품 찾기’라는 주제로 무료 공개강좌를 마련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강좌는 김지만 한화증권 포천지점장의 초청특강으로 마련됐으며, 국내외 경기 흐름 알기, 금융자산 제대로 알아보기, 투자방법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돼 재테크 전략에 관심이 많은 젊은층 및 주부들의 참여가 높았다. 이날 참석한 시민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은 있었지만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강좌

를 통해 얻은 정보로 재테크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홀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금융상품의 구조에 대해 폭넓게 다루어진 만큼 신문 경제면에 나오는 금융상품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가정경제를 일으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가맹점의 세금 혜택

Q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선용 씨는 요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자니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가입하지 않고 있자니 고객이 점점 줄어 들 것 같기 때문이다. 이선용 씨는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때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A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세금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래 사업자(현금영수증발급 대상사업자)가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운영 간이과세자는 발급금액의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단, 개인사업자에 한함) 단, 발급금액의 1.3%(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만원까

지만 공제해 준다.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③ 숙박업 ④ 교육·이발·미용업 ⑤接客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한약사업, 수의사업, 행정사업, 다만,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⑧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배달용역 ⑨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i) 도점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ii)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iii) 주거용 건물공급업 iv)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v) 부동산중개업 vi)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vii) 가사서비스업 viii)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ix) 위 i) 내지 viii)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

계산서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재까지 곤란한 사업 x)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xi)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xii)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xiii)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xiv)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xv)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1.3%(또는 2.6%)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가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대출액이 1억원이라면 2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시 전화망을 사용하여 건물 5천원 미만의 발급 승인건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문의전화 : 의정부세무서 부가치세과 031)870-4282~91, 031)870-4322~30

## 우리지역 사업소 옛날보신탕

### ‘내 가족이 먹는다는 그 이상으로 고객맞이’

#### 청결하면서도 맛깔스런 음식 만들기에 최선을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이 윤택해지면서 현대인들의 화두는 대부분 ‘건강’에 포커스를 맞춘다. 모든 사람들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금연 및 금주, 맞춤형 운동, 건강식품 등으로 각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건강을 지키려면 ‘잘 먹고 잘 자라’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먹거리는 건강한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최근 기업형 대형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친환경농산물코너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만큼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유통양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는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가 ‘최고’라는 인식이 고객들에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치솟는 물가로 인한 여과가 식탁까지 반전 점심식사 가격 1만원 시대가 열렸다. 1만2~3천원하는 냉면집 이야기도 자주 매체에 오르내린다. 정직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며 10여 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고수해온 ‘옛날보신탕’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21, 대표 노운숙)을 소개한다. 먼저 이곳은 주 메뉴로 사철탕, 수육, 전골, 무침, 뚝배기, 삼계탕, 닭도리탕 등과 가정식 백반을 취급하고 있다. 모든 메뉴를 보면 주로 고객의 건강을 생각한 식단이라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처음 음식 업을 시작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노 대표가 10여년 넘게 이곳을 운영해온 데는 사연이 많다. 노 대표의 남편은 이곳에서 다년간 직소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해왔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전신마비가 그의 운명을 바꿔 놓은 것이다. 평소 농장을 운영하는 남편의 내조와 집안 살림만을 해오던 노 대표는 남편의 갑작스런 사고에 있어 캄잡했다. 사고 후 어떻게 하면 가족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지만 당시 막막하기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대표의 친동생과 이웃들의 권유와 도움으로 음식점을 하게 된 것이 지



대표 노운숙

금까지 이어왔다. 음식점을 시작하기 전 노 대표는 ‘나와 내 가족이 먹는다는 그 이상’으로 음식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단단하게 마음먹고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개업초기 많은 어려움도 따랐지만 친동생 부부와 이웃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고 눈시울을 적신다. ‘옛날보신탕’의 모든 식재료는 노 대표가 직접 기른 개와 닭을 이용하여 야채나 채소 등 기타 재료도 고객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모두가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모두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다. 노 대표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제는 천직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찾아주시고 고객들에게 청결하면서도 맛깔스러운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드렸는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음식만을 식단에 내놓았습니다. 인근 지역 외에도 서울, 인천 등에서도 오랜 된 단골손님들이 많이들 찾아주고 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의 음식 취향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주시고 고객들이 안심하게 드실 수 있는 식당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옛날보신탕’은 1,3주 화요일을 정기휴일로 정해놓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일동 제일원전과 운담초등학교를 지나 이동방향으로 약 5km 운행하다보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예약 문의전화: 031)532-4647, 010)5133-4647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옛날보신탕’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21)

## 산업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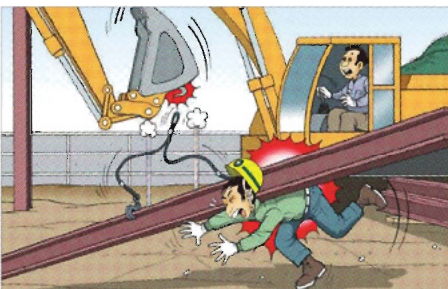
### 잘못된 장비 사용으로 사라진 목숨

#### ▶ 재해발생 개요

2011년 4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지말뚝(H-Beam)을 뽑아 임시야적장에 옮기는 흙막이가시설 해체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의 도착이 지연되자, 임지말뚝을 쉽게 뽑기 위해 사용중이던 백호우를 이용하여 임지말뚝을 운반하던 중 임지말뚝에 설치된 와이어 로프가 균형이 맞지않아 후크에서 이탈되며 낙하한 임지말뚝이 작업자를 덮쳐 병원 후송 후 사망.

#### ▶ 재해발생 원인

가. 차량계건설기계의 용도의 사용 임지말뚝의 운반은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용용도가 다른 백호우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함. 나. 부적절한 작업방법 임지말뚝과 같이 긴 자재의 줄길이 상태는, 균형을 이루어 안전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의 2줄 길이 와이어로프를 백호우 버켓 후면의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에 체결하여 작업함. 다. 유도자(신호수)의 미배치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는 장비운전원이 작업상태를 알 수 있도록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했어야 하나



유도자가 미배치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용도에 맞는 차량계건설기계의 사용 차량계건설기계를 그 쓰임새에 맞는 용도의 작업에만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안전한 작업방법 줄길이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해지장치가 부착된 후크를 사용해야 함. 또한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여 장비운전원과 원활한 교신을 통해 안전하게 작업해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 포천신문 노인명예기자단 제7차 정기총회

## 박경수 단장 취임 “노인은 지혜·경험 풍부한 Know人”

### 14대 임원진 위촉... ‘조직 활성화 업적’ 남용만 전 단장에 감사패



### 곳은 날씨 불구 14개 지부 80여 명 참석 ‘열기’

포천신문 노인명예기자단은 6월 29일 오후 3시 동교동 포천신문사 구사육 고은빌딩 2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박경수(사진) 단장 등 제4대 임원진을 선출하고 본격 출범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곳은 날씨에도 14개 읍면동에서 80여 명의 노인명예기자가 참석한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제4대 임원진 구성하고 박경수 부단장을 단장으로, 임주성 총무를 부단장으로, 최영호 감사를 총무로, 손철만 내촌면지부장을 감사로 각각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제4대 임원진으로 선출된 박경수 단장, 송태원·남용만 고문, 장경섭·임

포천신문에만 있는 노인명예기자단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앞으로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이사는 이어 “2, 3대 남용만 단장님은 정원을 확대하고 이사제를 도입해 헌신적으로 노인명예기자단의 조직을 활성화시켜 놓은 분”이라고 업적을 높이 평가했고, 박경수 신임 단장에 대해서는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교육발전에 기여하신 분으로서 신망이 두텁고 리더십도 뛰어난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경수 제4대 단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포천신문 가족을 중시하며 노인명예기자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최호열 대표이사님과 리더십과 추진력이 뛰어난 남용만·송태원 고문님, 그리고 임원진을 비롯한 150명의 노인명예기자단이 있기에 든든하다”고 말하고 “노인은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가장 풍부한 Know人”이라며 “포천신문 노인명예기자단은 당당히 가슴을 펴고 기사도 제보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먼저 행동하는 가장 멋진 어른시 단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용만 고문(2, 3대 단장)은 이임사에서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임원회의를 개최하면 14개 지부장 전원이 빠짐없이 참석해 좋은 의견을 나눌 정도로 노인명예기자단이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난 것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제4대도 박경수 단장을 중심으로 화합해 포천신문과 노인명예기자단이 도약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노인명예기자단은 이날 남용만 전 단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14개 읍면동 지부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상형 기자 lscnews@hanmail.net

■ 포천신문 칼럼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 “칼럼 통해 신문의 질 높이고 포천사회 변화시키자”

포천신문 칼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대진대 교수)는 지난 6월 20일 오후 6시 포천시 선단동 H 음식점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 칼럼위원회 박정근 위원장(대진대 영문과 교수), 김성열 부위원장(대진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김흥태 위원(대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박정규 위원(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배기목 위원(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희철 위원(대진대 건축공학과 교수), 정흥모 위원(대진대 국문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포천신문 기고 참여 및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신문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대학 교수 필자들로 구성된 칼럼위원회는 분야



왼쪽부터 김흥태·윤희철·배기목 위원, 박정근 위원장, 최호열 대표이사, 박정규·김성열·정흥모 위원

별 칼럼을 통해 포천신문의 질을 높이고 포천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독자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의식을 높여주는 수준 높은 칼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근 칼럼위원장은 “최근 칼럼위원회에는 원어인 출신인

레이 워크 대진대 영문과 교수와 박정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배기목 대진대 교수 등이 새로 합류해 다양한 칼럼 기고가 가능해졌다”면서 “연간 기고 스케줄을 작성해 모든 칼럼위원의 칼럼이 지면에 정기적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상형 기자 lscnews@hanmail.net

■ 포천신문 취재발전위원회 제21차 정기회의

## “폭넓은 인적네트워크 활용, 취재지원 나서자”



포천신문 취재발전위원회(위원장 김대열)는 지난 6월 24일 오후 7시 포천시 군내면 구름길에 소재한 포천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이상창 편집국장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으로 지난 5월 열린 취재발전위원회 단합대회 겸 포천신문산악회 정

기산행에 대한 결산보고와 기타 안건이 논의됐다.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취재발전위원회가 포천신문사의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많은 사람들과 밀접하면서도 건전한 관계를 맺어 서로 윈 윈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한 김대열 취재발전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오명수 총무는 인사말에서 “포천신문이 더욱더 제 역할을 다 해 포천시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안건을 많이 내고, 적극적인 취재 지원도 펼쳐 보이자”고 당부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포천신문산악회, 군내면 신사육에서 화합 다져

## 우천으로 왕방산 등반 취소... 50여 명 친목 회합

### 7월 23일 제8차 산행 깊이올계곡·국사봉서 개최

포천신문산악회(회장 이보용)는 6월 25일 제7차 정기산행을 포천을 대표하는 명산인 왕방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장마비가 계속돼 취소하고 포천신문사 군내면 신사육 1층에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9시 회원 50여 명은 집결장소인 왕산사주차장에 모여 산행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왕방산 등반을 취소하고 포천신문사 신사육으로 장소를 이동해 참석자 전원이 자기소개를 하고 산악회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등 친목을 다졌다.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지난 5월 대둔산과 새만금방조제를 다녀오는 7개 단체 단합대회와 산악회 제7차 정기산행

의 성공적 개최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산악회 창립 이후 해풍산 등반하다 대둔산에 이어 오늘 왕방산에 오르려고 했지만 일기가 좋지 않아 아쉽다. 대신 오늘 신사육에서 서로 마주 앉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보용 포천신문산악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등산 준비를 해서 오늘 아침 집을 나선 회원들은 가장 열성적인 포천신문산악회 회원이며 심신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오늘 비록 왕방산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포천신문사 신사육 민원빌딩에 모여 대화하고 도시락을 나눠먹는 것도 등산 못지 않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23일 실시되는 제8차 정기산행은 신북면 소재 깊이올계곡과 국사봉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오전 9시 깊이올계곡 저수지 위 주차장에서 집결하기로 했다.

이상형 기자 lscnews@hanmail.net



### 중년의 로맨티즘

가는 세월  
야속해 하지만  
한번쯤은 그리워지는

사랑은 애절하고,  
친구 같은!

청초하고 배려하는 사랑  
중년의 향기

수채화의 채색처럼 유려함이  
빛바랜 사진속의 연인처럼

의미 없는 미소야말로  
사랑의 향기



박혜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고문



## 성남까지는 환상적인 걷기 코스였다

〈서울 태릉~서울숲~성남〉  
- 2011년 5월 14일 날씨 맑음

막내 집에서 편안히 쉬고 아침 일찍 태릉 육사 앞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걷는다. 어제의 피로가 풀려서인지 오늘은 한결 발걸음이 가볍다. 신발도 새로 구입한 트레킹화를 신으니 가볍고 편하고 한결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시작된 자전거길은 너무 좋다. 한쪽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 다른 한쪽은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길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서울시민은 세금을 많이 내서인가.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여유를 즐기면서 삶을 윤택하게 사

니 정말 부럽다.

서울시는 인구가 많아서인가 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과파 비교를 하게 된다. 중랑천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각각각 색의 운동복에 자전거 타는 사람, 걷는 사람, 롤러스케이트 타는 사람,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걷는 사람, 휠체어에 환자를 싣고, 뒤에서 밀며 산책하는 사람, 건강을 찾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 흐르는 물을 보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걷고 또 걷다보니 중랑천 자전거길이 끝나고 광진구 송

정 독 자전거길에 들어선다.

송정 독길은 걷고 자전거 타기가 너무 좋다. 독 양쪽에 잘 자란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곳곳에 벤치가 놓여있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도시인들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며 농촌의 생활과 차이를 실감했다.

독길은 식수대, 화장실, 각종 운동기구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쉬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책을 보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보며 걷다보니 독길이 끝이나고 당황했다.

성수대교를 건너기 위해 서울 숲 방향으로 시내길을 걸어 서울 숲에 도착해서 자리를 펴고 잠시 휴식한다. 출발 전 우리 동네 정동일 씨가 싸준 땅콩, 막내며느리가 싸준 방울토마토와 식빵으로 점심식사를 한다. 서울에 이렇게 좋은 숲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숲속에서 놀이를 하며 즐긴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서울은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수도다. 우리나라는 잘사는 나라다. 대한국민임에 자부심을 갖는다.

성수대교 중간쯤 건너다 이름은 모르지만 쌍둥이 고층빌딩을



양주승  
포천신문 지문위원회  
고문, 포천신문  
사단법인 회장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열심히 걷는다. 나는 조금 천천히 걸으면서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보고 싶는데 막 권사 앞. 이 다리는 몇 년 전 무너진 다리야. 구경이고 뭐고 빨리 건너자고 앞서 열심히 걷는다. 오늘의 목적지는 탄천을 따라 성남시에 도착해야 한다. 의정부에서 시작된 자전거길, 성남까지는 환상적인 걷기 코스다. 쉽게 성남에 올 수 있었다.

북정동 근처에 올라와 숙박할 곳을 찾으니 가까운 곳에는 숙박할 곳이 없다. 풍생중고 쪽으로 가야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풍생중고등학교 앞으로 갔더니 모텔이 몰려 있다. 때는 19:30시경 큰 아한들에서 전화가 와 우리 숙박할 곳을 정해줬다고 했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다. 큰 아들이 올 때까지 여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간다. 아들이 도착하여 막무가내로 저희 집으로 가시자고 한다. 할 수 없이 아들이 가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숙박을 한다.

### 이미송의 창작 (12)

## 발아래는 봉우리들이 펼쳐지고



〈설악산 2편-대청봉→소청봉까지〉

대청봉 정상에 올라오니 반대편 산 아래로 신천지가 기다리고 있다. 설악산의 거의 전부가라고 할 만큼의 산세가 펼쳐져 있고 날씨마저 좋아 속초시내와 아련하게 동해바다까지 보일 듯하다.

오른쪽으로는 녹색의 푸르름이 뒤덮인 화채능선이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왼쪽 옆으로 우리가 하산길로 계획하고 있는 천불동계곡이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가까이서는 중청봉 대피소가 보이고 멀리 울산바위와 범봉, 신선봉, 1275봉, 마들령과 활천봉까지!

친구는 마치 자기마를 동산에 온 듯 손으로 설악산의 모든 봉우리를 가리키며 일러주지만 난 그저 속초 시내에서 올라다보던 대청봉에 올라 이름 모를 바위산과 봉우리들이 발아래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워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몇 번이고 돌아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데 마치 아무도 없는 감정을 진정시켜야 했다.

중청으로 내려오는 길은 진달래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6월의 진달래를 꼭 보고 싶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색이 바랬다고 친구는 아쉬

위를 지나 뒤로 이어지는 기암괴석의 공룡능선까지는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봉정암 사리탑과 용아장성 바위를 가까이 당겨서 찍은 사진은 친구가 찍은 사진이다. 난 사리탑은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 번 와 본 사람과 처음 와보는 사람은 보는 것도 다른가보다.

한계령 산등성이에서 아가부터 헬리콥터가 떠나질 않는다. 아침 오색에서 출발하는 시점에도 사고가 있었는지 환자를 업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큰사고가 아니기를... 모두 무사안전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래본다.

봉정암 내려가는 돌계단에 스님 한분이 헬리콥터가 떠나는 한계령 방향으로 앉아 기도를 드린다. 이 스님도 내생각과 같지 않을까.

경사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시간은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나오고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선대까지는 가야할텐데... 우리는 결국 봉정암은 다음 기회로 마루고 소청으로 다시 올라왔다. 400m 지점까지 내려갔다 올라오기를 한 시간도 넘게 걸린 듯하다. 대청봉 올라오는 길 보다 경사가 더 심한 것 같아 숨을 몰아쉬며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 회운각 대피소를 거쳐 천불동 계곡 비선대 신흥사길과 설악동 소공원까지 9.8km를 내려가야 한다.

소청에서 내려다 본 천불동 계곡은 마치 거대한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설악의 모세혈관을 보는 듯하다. 여기서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시간은 오후 두시가 넘어 있었다.

이미송

포천신문 지문위원회 부위원장  
주부명예기자단 부총무

이미송

포천신문 지문위원회 부위원장  
주부명예기자단 부총무

이미송

포천신문 지문위원회 부위원장  
주부명예기자단 부총무

이미송

포천신문 지문위원회 부위원장  
주부명예기자단 부총무

이미송

포천신문 지문위원회 부위원장  
주부명예기자단 부총무



■ 포천신문사 2011년 6월 불우이웃돕기 실시

## 소외이웃 8가정에 성금 및 쌀 전달

최호열 대표이사, 추천자들과 대상자 가정 방문



포천신문사(대표이사 최호열)는 지난 6월 28일 포천신문사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접수된 성금과 물품을 소외이웃 8가정에 성금 10만원씩과 쌀 40kg(20kg

X2포)씩을 각각 전달하는 2011년 6월 정기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했다.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

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불우이웃을 추천한 이효정 주부 명예기자단 부단장, 김양숙 주부 명예기자, 이현재 노인 명예기자단 이

선하·최소영 시민기자 등과 함께 각 읍면동 불우이웃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성금과 쌀을 전달했다.

포천신문사는 이날 ▶유촌화(관인면 초과리) ▶최용득(이동면 노곡리) ▶김보영(일동면 기산리) ▶박상경(일동면 기산리) ▶박종숙(내촌면 소하리) ▶이광순(내촌면 내리) ▶정종일(가산면 가산리) ▶전동수(소흘읍 주공4단지) 등 생계가 어렵지만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8가정을 방문해 성금과 쌀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했다.

한편,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불우이웃 대상자들의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하고 "자녀들이 다 컸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연라이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생계가 매우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다"며 "더 많은 성금과 물품을 전해주고 싶지만 보다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에 정해진 성금과 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삼천 기자 lscnews@hanmail.net

## 포천노인회 '제9회 노인회호대회' 개최

금상 이덕성, 은상 이순휘·이성우, 동상 유태균·이정호·이가평 등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포천시 지회(지회장 이금중)는 지난 6월 27일 포천시 여성회관 2층에서 '제9회 노인회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 개최식은 흥운기 경제생활지원국장, 이민구 포천문화원장, 포천노인회 고문 및 임원, 각면 분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소개, 개회선언, 국민의례, 이호연 부지회장의 노인강령낭독, 이금중 지회장의 대회사, 흥운기 국장의 축사, 장동원 심사위원의 심사기진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이봉석 심사위원장의 심사평이 있었다.

2시간동안 대회가 진행된 결과, 이덕성 어르신은 금상의 영예를 차지



지했고, 은상은 이순휘·이성우 어르신, 동상은 유태균·이정호·이가평 어르신, 장려상은 전용익·신동례·오종삼·김명수·김선일 어르신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무일 포천신문 노인 명예기자

“포천소방서에 웃음꽃 활짝 피었네”



포천소방서(서장 신종훈)는 21·22일 양일간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정신교육과 더불어 외부강사를 초청, 친절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윤수정 전국웃음강사협회 대표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웃음 ▲경청의 중요성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 ▲고객과의 관계는 신뢰가 생명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만들기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포천소방서는 특강에 앞서 직원과의 소통 시간은 '대화의 장' 프로그램을 진행, 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 및 개선으로 내부고객 직장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전 직원이 친절, 봉사, 청렴의식 함양으로 사람과 신뢰를 받는 국민안전의 책임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포천 여성회관에서 '아나바다 알뜰시장' 열려



“포천시 여성회관은 지난 6월 23일 2층 로비에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뜻의 '아나바다 알뜰시장'을 열었다. '아나바다 알뜰시장'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버리기 아까운 멀쩡한 옷들과 장신구 등 약 1백여 점이 선보여졌다. 여성회관 현대의상반 동아리에서 지원한 여름 티셔츠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고,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소품들을 선보였다. 재파견반에서는 바로 만들어 갖 구워낸 따끈한 빵을 판매해 인기를 모았다. 이번 행사에 교육수강 후 방문했던 한 수강생은 "평소 소장하고 싶었던 가죽덜자켓을 단돈 오천원에 샀다"며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포천무한돌봄 서포터즈 '2011 통합워크숍'

이주현 포천사회복지관장 '위기가정 극복 위한 지역사회 역할' 특강



포천시는 지난 6월 21일 여성회관에서 이·통장, 부녀회장,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 무한돌봄 서포터즈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 및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한 서포터즈들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위기가정 극복을 위해 앞으로 활동할 신규 서포터즈를 위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서포터즈의 역할 강화를 위해 '위기가정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이란 주제로 이주현 포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특강이 있었다.

정병길 기자 jpk61@paran.com

이·통장 경기북부지부 월례회의 포천서 열려



지난 6월 23일 포천시청 시청회의실에서 전국 이·통장 경기북부지부 6월중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원호찬 경기북부지부장(가평군 지회장)을 비롯해 경기북부 8개 시·군 지회장 및 부지회장, 사무국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지부 이·통장들간의 정보공유와 주민자치를 위한 이·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한 사항이 논의됐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포천주부모니터단, 복지시설에서 나눔 봉사



제3기 포천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대표 권보경)은 지난 6월 20일 장애인복지시설인 '유일사랑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주부모니터단은 장애인들을 위한 점심식사를 손수 준비해 식사를 돕고, 그들의 말벗이 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부모니터단은 시설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머니를 털어 비누, 세제 등 생활용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포천 관인면주민자치, 서울 성북동과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판로 알선, 숲골마을 관광 등 교류 활성화 추진



포천시 관인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지난 6월 17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서울 성북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현동)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인면에서 이부휘 포천시의회 부의장, 이한철 관인면장, 박재경 관인농협장, 각 기관·단체장, 주민자치위원 등 60명이 참석했으며, 성북동에서 김은미 동장, 각 기관단체장, 주민자치위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양 지역은 통해 향후 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한 우수 동아리 상호교류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간 우호 증진과 상호 방문을 합의했다. 특히 양 위원회는 신선하고 값싼 관인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판로를 알선하고 단동2리 숲골마을 등 농촌체험과 관광을 실시하는 등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포천시 산림녹지과, 해뜨는집 방문 봉사활동

포천시 2/4분기 봉사활동으로 포천시 산림녹지과가 지난 6월 18일 신북면 가채리 소재 장애인 요양시설 '해뜨는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가졌다.

산림녹지과는 해뜨는집에서 채소밭 잡초제거와 김매기, 농약살포, 시설 내·외부 청소를 실시하고 간식 등을 지원했다. 해뜨는집은 총 29명의 지적·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1급~3급의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복지요양시설로 주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장일 과장은 "접차외부로부터 사람과 봉사의 손길이 뿜어지고 있는 각박한 현실을 인식해 올해도 봉사계획에 따른 2/4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병길 기자 jpk61@paran.com



### SI 세립가구장식

신뢰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믿을 수 있는 품질과 저렴한 가격

세립가구장식은 인테리어소품, 가구, DK, 생활용품 등 최신하고 우수한 상품의 원리는 에스엘에게 맡겨주세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모집합니다 상담전화 031-541-0315

- 가구부재전문-가구,싱크,팬시
- 포장재전문-발포지,비닐가공
- 로구조조-목수장인,목디보공
- 온라인판매-전국택배가능

소품고리

각종피스

케스타

가구대리

타카기계

페인트

가구수리

불레일

### 삼성화재상해보험주식회사

수석팀장 이효정

송우지점

삼성화재

전 화: 031-543-3114

휴대폰: 010-6243-5811

### 현대자동차

정직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동판매대리점

윤충식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328-9

T: 031-534-7821 F: 031-534-7822

E-mail: scorpio1004@hanmail.net

휴대폰: 011-242-1807

### 유럽 TOP 와인유통사

글로벌 와인 직영판매장

대표 광복준

전 화: 031-533-0078

팩 스: 031-533-0090

포천시 영종면 양문리 원신마트

### 일동 주간보호센터

센터장 정미옥

내 부모를 모시듯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휴대폰: 010-5308-4869

전 화: 031-531-0309

### 한탄강추어매운탕

메기매운탕 30,000원

빠가사리·참게 추가 가능

라면·수제비 셀프(무제한)

예약문의: 031)541-5535

위치: 대진대학교 정문 맞은편

### 오리숯불회전구이

★차량 12인승 항상 대기★

기업체·단체 회식에 최적

예약문의: 031-543-5261

위치: 푸른동산에서 투바위 방향 300m 우측

체인점 모집

오리숯불회전구이 기계제작 업체

031)543-1113

### 햇빛촌

(일신아파트 맞은편)

청국장정식, 김치찌개 정식

매운갈비찜, 해물갈비찜

※예약시 원하시는 메뉴 제공

예약문의

031-544-5789, 542-0357

### DC 덕우케미칼

플라스틱 착색용 마스터 배지 제조

Film용, 사출용, 기능성

Blow 성형 및 기타

대표 박경천

전화: 031-543-4469 · 4416

FAX: 031-543-4461

### 소갈비·돼지왕갈비 전문점

소갈비·돼지왕갈비

- 동식 240명 식사가 가능
- 넓은 주차공간 확보
- 상운APT에서 도보 5분거리
- 차량 한시 대기

전 화: 031-542-5969

### 커피 미니자판기

무상임대

자판기 A/S 및 판매

커피재료 및 국산차 판매

원두코리아

016-210-1473

031-536-6103

### 정교부동산

공인중개사 정경모

공장용지·공장·농지

위치: 한샘아카데미 옆

전 화: 031-542-8050

휴대폰: 011-9135-5921

### 어·도·일·식

생대구탕, 복지리

물곰치탕, 장어정식

예약문의: 031-541-5577

위치: 송우리 삼성플러스 맞은편 1F

### 진성주유소

Hyundai Oilbank

정품·정량 신속배달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892

전화: 031-532-7773

FAX: 031-532-6222

### 진호콘테이너

(콘테이너 전문운송)

대표 전용주

주택용, 사무실용, 기숙사, 방갈로

창고, 화장실 증고 고가 매입·판매

전 화: 031-541-3400 ~ 1

핸드폰: 010-5280-5104

### 가구와싱크공장 직판장

불박이장, 맞춤가구

일반가구, 주문제작

무료견적/상담환영

전 화: 031-543-0400

휴대폰: 011-341-1443

http://jubang.pr365.com

### 송우리 능이버섯백숙

능이오리백숙, 능이닭백숙

능이오골계백숙

남·여 홀 씨빙 구함

예약문의: 1시간 전이면 OK

031-541-4470

### 오리1번지

대표 이현우

오리숯불구이, 오리한방수육

오리훈제, 웃오리, 약오리탕

웃닭

단체 예약 환영

예약문의: 031-544-5295

휴대폰: 017-335-9249

### 늘봄컨벤션 웨딩홀

결혼, 돌, 백일, 고희연

결혼피로연, 각종 모임, 출장부페

예약문의: 031-543-2008, 8820

휴대폰: 017-298-4335

### 유한회사도성개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업·비계조물해체공사

전화: 031-543-0667

FAX: 031-543-8011



포천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존 E-CA 페스티벌

본선진출 청소년 14개팀 열띤 공연... 5백명 참여 ‘성황

포천시 일동면체육회는 지난 6월 21일 일동면사무소 3층 강당에서 오대식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2010년도 체육회 결산보고, 신임 회장 선출, 2011년 주요사업계획(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0년말 발생한 구제역 사태의 장기화와 농번기 등으로 부득이 연기돼 온 이날 총회는 회계결산, 신임 회장 선출 등 주요안건 심의를 위해 개최됐다.

최성철 일동면체육회장은 “2009년 체육회 이사회 구성 이후 내실있는



한전 포천지점, 전기울타리 안전 점검  
계약종별 맞지 않으면 철거 요청 및 위약 처리

한국전력 포천지점(지점장 장동원)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6월 30일까지 논, 밭 및 목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울타리 점검을 실시한다.

김형출 에세이 8  
슬픈 귀가(歸家)

하루가 고달프게 길어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루 이틀쯤 늦어지면 어쩌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무소식에 화들짝 놀라지도 못하는 슬픈 공상이야! 이별이 서러운 것들아! 서러운 것은 살아생전 돌아올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작은 기도를 올린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오월은 초록이 싱싱하고, 무청 같은 파도가 넘실댄다. 범접할 수 없는 스승의 그림자가 있고, 부처님의 자비와 하늘의 사랑이 충만한데도 슬픔이 있다. 그래서 오월은 찬란함과 아픔이 공존하는 달이다. 오랜만에 고속버스를 탔다. 평일이 라서인지 고속도로는 뱅 뚫렸다. 시원스럽게 달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오월은 알뜰도록 푸르다. 두 동강이 난 차디찬 서해에서 생애같은 내 자식들아, 날벼락 같은 어부들이 영영 기억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망자들아! 연평도는 잠시 기억력을 상실하고 구멍이란 구멍은 모조리 뚫렸다. 지금 어디 있느냐, 캄캄한 무소식이야!

한전 포천지점, 전기울타리 안전 점검  
계약종별 맞지 않으면 철거 요청 및 위약 처리

한전 포천지점은 대부분의 감전사고가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농사용 전력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사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계약종별에 맞지 않는 전기울타리를 철거 요

포천 일동면체육회, 오대식 신임회장 선출

“시체육회 이사 경험 바탕으로 발전 이끌 것”



포천시 일동면체육회는 지난 6월 21일 일동면사무소 3층 강당에서 오대식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2010년도 체육회 결산보고, 신임 회장 선출, 2011년 주요사업계획(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0년말 발생한 구제역 사태의 장기화와 농번기 등으로 부득이 연기돼 온 이날 총회는 회계결산, 신임 회장 선출 등 주요안건 심의를 위해 개최됐다.

최성철 일동면체육회장은 “2009년 체육회 이사회 구성 이후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포천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체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이 선출된 오대식 회장은 “포천시체육회 이사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약하나마 일동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자 포천신문 시민기자

청 및 위약 처리할 방침이다.

한전 포천지점 관계자는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않는 곳에 사람이 보기 쉽도록 적당한 간격의 위험표시를 해야 하며, 전기울타리용 안전장치가 포함된 설비를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농민들이 전기 감전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해 이에 대한 각종 홍보도 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선주 포천신문 시민기자

한전 포천지점, 전기울타리 안전 점검  
계약종별 맞지 않으면 철거 요청 및 위약 처리

한전 포천지점은 대부분의 감전사고가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농사용 전력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사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계약종별에 맞지 않는 전기울타리를 철거 요

한전 포천지점, 전기울타리 안전 점검  
계약종별 맞지 않으면 철거 요청 및 위약 처리

한전 포천지점은 대부분의 감전사고가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농사용 전력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사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계약종별에 맞지 않는 전기울타리를 철거 요

기고

로컬 푸드 운동

식습관 변화로 전통 밥상보다 대부분 수입 농축산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경과 다양성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자는 이론은 너무나 많이 주장되어 논란의 여지는 없으나 대형마트를 상대해야 하는 농민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덧붙여서 소량으로 재배되던 상추가 세계화 속에서 국제적으로 생산되고 국제적으로 이용하는 현실, 이런 과정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결국 환경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며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농업의 붕괴와 함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로컬 푸드 운동입니다. 로컬 푸드 운동은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되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지역 농산물을 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영양 및 신선도를 극대화 하며 화학연료의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 하는 운동입니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구입해서 먹거나 말 만들기과 같이 직접 농사를 해서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먹거리가 이동할 때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 먹을거리의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방부제와 살충제, 숙성제 등의 처리제의 정도가 증가하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로컬 푸드 운동은 이러한 이동거리를 매우 짧게 하면 지구 온난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로컬 푸드 운동의 다른 표현인 지산지소, 신토불이는 자기가 사는 땅에서 난 산출물이라야 체질에 잘 맞음을 잘 말해주고 있으며 로컬 푸드의 취지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의 생산 및 소비와 연결시켜 미각의 회복, 종의 복원과 지역 먹거리의 중요성과 다양성에 주력하는 운동으로 농업의 세계화를 경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주요농정은 이렇게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만 모든 정책의 목표는 지역민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지역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소농들이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좋은 수단 이 로컬 푸드 운동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산업화된 농업 및 먹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농민과 농민들로부터 먹거리를 사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것으로 농민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지만,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먹거리가 길러지는지 깊이 알아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 지역식량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세계적인 사례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역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임종석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기술지원 이사, 포천제21 사무국장

기고

연예계 매니저 사칭 주의해야

최근 포천 관내의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박모군은 화답한 일을 당했다. 박군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39세라고 밝힌 한 젊은이로부터 연예계 데뷔 제의를 받은 것. 그는 자신이 산정호수에서 현재 드라마를 찍고 있는 스태프 중 한 사람이며, 끼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가수나 연기자로 키우는 일을 한다고 소개했다.

평소 연예계에 관심이 많던 박군은 자신을 매니저 박씨라고 소개한 그에게 호감을 가졌고, 이내 친하게 됐다.

박군은 며칠전 노래자랑대회에 나가 상금도 탔고, 그 전에도 크고 작은 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많아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가수로 키워주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다.

박씨는 그 때부터 박군을 이곳저곳 음식집이며 술집을 데리고 다니며 돈을 쓰게 했다. 박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박군의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가수수업을 하기위해 편의를 봐달라고 전화를 하는가 하면 박군의 부모에게도 나오라고 해 가수로 키어 주겠으니 동의해달라며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걸겠다고 하는 등 환심을 샀다.

박군은 친구 김군을 불러내 박씨에게 소개하려 했고, 김군은 연기자를 시켜주겠다고

는 말에 따라나섰다. 박씨를 만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김군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박군과 함께 귀가했다.

소문에 의하면 박씨는 운전시대 여러 음식집에 외상을 지었다. 박군을 안다는 한 식당주인은 박씨가 사기꾼이 틀림없다며, 외상값을 어떻게 받아내냐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연예계에 종사했던 홍모씨는 “지방에 드라마나 영화촬영 등이 있으면 흔히 이런 사기꾼들이 꼬인다. 가수나 연기자를 시켜준다면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많이 주겠다고 계약을 하자는 젊은이 모두 사기이니 주의해야 한다”며 “연예계에는 현재 성공한 연예인들도 사기를 당할 정도로 사기꾼이 많다. 연예인치고 한 두번 사기 안당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산정호수 평강식물원에 있는 드라마 촬영현장을 보기 위해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곳. 이러한 사기꾼에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박춘형  
포천신문 시민기자

# 전기안전관리.....!!

##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고객의 전기시설물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관리하며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기업

변압기 정밀점검

전기안전점검 및 A/S 대책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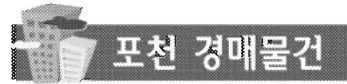
대표 안병호

-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
- 전기설비의 점검 및 진단
- 최첨단 측정 장비 보유
-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점검대상 : 학교, 관공서, 빌딩, 공장 등 자가용 전기설비

회사명 :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TEL : 031)541-9111~3    FAX : 031)541-9114~5





상세내용은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  
(http://www.courtauction.go.kr/) 참조

2011년 6월 30일 현재

경매 17계

(2011. 7. 1 예정)

| 번호 | 소 재 지                                 | 종 별  | 면적(㎡)  | 감정가(원)        | 최저가(원)        | 유찰회수 |
|----|---------------------------------------|------|--------|---------------|---------------|------|
| 1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76<br>송우합금프라자 5층 502호 | 집합건물 | 130.38 | 947,000,000   | 227,375,000   | 7회   |
|    | 동소 502호                               | 집합건물 | 123.24 |               |               |      |
|    | 동소 503호                               | 집합건물 | 61.62  |               |               |      |
|    | 동소 504호                               | 집합건물 | 130.38 |               |               |      |
| 2  | 동소 505호                               | 집합건물 | 130.38 | 947,000,000   | 227,375,000   | 7회   |
|    | 동소 506호                               | 집합건물 | 61.62  |               |               |      |
|    | 동소 507호                               | 집합건물 | 123.24 |               |               |      |
|    | 동소 508호                               | 집합건물 | 130.38 |               |               |      |
| 3  | 동소 601호                               | 집합건물 | 445.62 | 948,000,000   | 227,615,000   | 7회   |
|    | 동소 602호                               | 집합건물 | 445.62 | 981,000,000   | 235,538,000   | 7회   |
| 4  | 동소 22-9                               | 전    | 3293   | 823,250,000   | 421,504,000   | 4회   |
| 5  | 포천시 신읍동 43-18<br>예원프라자 1동 6층 601호     | 집합건물 | 63.96  | 314,000,000   | 314,000,000   | 신건   |
|    | 동소 602호                               | 집합건물 | 78.48  |               |               |      |
|    | 동소 603호                               | 집합건물 | 90.3   |               |               |      |
| 6  | 동소 604호                               | 집합건물 | 84.15  | 114,000,000   | 114,000,000   | 신건   |
| 7  | 동소 605호                               | 집합건물 | 88.78  | 1,139,000,000 | 1,139,000,000 | 신건   |
|    | 동소 606호                               | 집합건물 | 84.8   |               |               |      |
|    | 동소 607호                               | 집합건물 | 84.8   |               |               |      |
|    | 동소 608호                               | 집합건물 | 84.8   |               |               |      |
|    | 동소 609호                               | 집합건물 | 92.92  |               |               |      |
|    | 동소 610호                               | 집합건물 | 84.8   |               |               |      |
|    | 동소 611호                               | 집합건물 | 84.8   |               |               |      |
|    | 동소 612호                               | 집합건물 | 84.8   |               |               |      |
| 9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109                       | 전    | 2893   | 202,510,000   | 82,948,000    | 4회   |
| 10 | 동소 회대리 402-1                          | 전    | 196    | 14,235,000    | 11,388,000    | 1회   |
| 11 |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535-9                     | 도로   | 92     | 11,040,000    | 8,832,000     | 1회   |
| 12 | 포천시 가산면 방곡리 78-1                      | 전    | 4443   | 362,704,200   | 362,704,200   | 신건   |
|    | 동소                                    | 기타   | 93.62  |               |               |      |
|    | 동소 78-4                               | 전    | 688    |               |               |      |
|    | 동소 78-5                               | 전    | 13     |               |               |      |
| 13 |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312-1                     | 공장용지 | 3675   | 1,302,679,200 | 1,302,679,200 | 신건   |
|    | 동소 가동호                                | 기타   | 102    |               |               |      |
|    | 동소 나동호                                | 기타   | 445.02 |               |               |      |
|    | 동소 다동호                                | 기타   | 481    |               |               |      |

| 번호 | 소 재 지              | 종 별  | 면적(㎡)  | 감정가(원)      | 최저가(원)      | 유찰회수 |
|----|--------------------|------|--------|-------------|-------------|------|
| 13 | 동소 312-2           | 도로   | 228    |             |             |      |
|    | 동소 312-3           | 임야   | 170    |             |             |      |
|    | 동소 312-4           | 도로   | 83     |             |             |      |
|    | 동소 312-5           | 공장용지 | 833    |             |             |      |
| 14 |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산158-3 | 임야   | 6688   | 84,883,600  | 84,883,600  | 신건   |
| 15 |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산21-13 | 임야   | 4989   | 119,736,000 | 119,736,000 | 신건   |
| 16 |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63    | 임야   | 105174 | 210,348,000 | 210,348,000 | 신건   |

경매 4계

(2011. 7. 5 예정)

| 번호 | 소 재 지                              | 종 별  | 면적(㎡)    | 감정가(원)        | 최저가(원)        | 유찰회수 |
|----|------------------------------------|------|----------|---------------|---------------|------|
| 1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209-1                  | 도로   | 248      | 524,218,000   | 288,399,000   | 3회   |
|    | 동소 209-2                           | 대    | 3103     |               |               |      |
|    | 동소 209-2                           | 목조   | 138.9    |               |               |      |
|    | 동소 212-4                           | 잡종지  | 79       |               |               |      |
|    | 동소 209-4                           | 대    | 348      |               |               |      |
|    | 동소 209-7                           | 대    | 143      |               |               |      |
|    | 동소 209-8                           | 대    | 153      |               |               |      |
| 2  | 동소 202-2                           | 대    | 413      | 136,240,000   | 69,755,000    | 3회   |
|    | 동소 205-2                           | 대    | 283      |               |               |      |
|    | 동소 205-5                           | 대    | 246      |               |               |      |
|    | 동소 205-4                           | 대    | 106      |               |               |      |
| 3  | 동소 209-6                           | 대    | 305      | 30,867,000    | 15,702,000    | 3회   |
|    | 동소 209-5                           | 대    | 32       |               |               |      |
| 4  | 포천시 신읍동 43-18<br>예원프라자 1동 2층 232호  | 집합건물 | 9.26     | 20,000,000    | 6,554,000     | 5회   |
| 5  | 포천시 일동면 수일리 906                    | 묘지   | 2298     | 322,536,000   | 206,423,000   | 2회   |
|    | 동소 908                             | 대    | 168      |               |               |      |
|    | 동소 908-1                           | 임야   | 24       |               |               |      |
|    | 동소 908-2                           | 대    | 816      |               |               |      |
| 6  | 포천시 신읍동 43-18<br>예원프라자 1동 비1층 비35호 | 집합건물 | 15.12    | 30,000,000    | 153,600,000   | 3회   |
| 7  |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229                    | 대    | 2611     | 517,275,350   | 331,056,000   | 2회   |
|    | 동소 1호                              | 기타   | 194.22 외 |               |               |      |
|    | 동소 229-6                           | 대    | 439      |               |               |      |
|    | 동소 229-7                           | 대    | 541      |               |               |      |
|    | 동소 229-7                           | 기타   | 999      |               |               |      |
|    | 동소 229-4                           | 도로   | 141      |               |               |      |
| 7  |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135                    | 임야   | 2141     | 1,288,818,000 | 1,031,054,000 | 1회   |
|    | 동소 135-2                           | 도로   | 629      |               |               |      |
|    | 동소 137                             | 전    | 4982     |               |               |      |
|    | 동소 138                             | 전    | 559      |               |               |      |
|    | 동소 138                             | 기타   | 246      |               |               |      |
|    | 동소 138-1                           | 전    | 4872     |               |               |      |

경매 12계

(2011. 7. 6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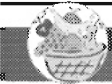
| 번호 | 소 재 지              | 종 별  | 면적(㎡) | 감정가(원)        | 최저가(원)      | 유찰회수 |
|----|--------------------|------|-------|---------------|-------------|------|
| 1  |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651-5 | 분묘지  | 264   | 79,200,000    | 6,803,000   | 11회  |
| 2  | 동소 명산리 271-4       | 임야   | 761   | 12,683,000    | 6,494,000   | 3회   |
| 3  |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산126   | 임야   | 11504 | 7,689,320     | 3,926,000   | 3회   |
| 4  | 동소 내리 산91          | 임야   | 23306 | 23,306,040    | 11,933,000  | 3회   |
| 5  | 포천시 군내면 좌의리 산23    | 임야   | 12932 | 27,066,750    | 13,858,000  | 3회   |
| 6  |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94-22 | 대    | 268   | 121,710,000   | 48,852,000  | 4회   |
|    | 동소                 | 기타   | 90.01 |               |             |      |
| 7  | 포천시 영북면 아미리 산7     | 임야   | 99471 | 265,256,000   | 169,764,000 | 2회   |
| 8  | 동소 산12-2           | 목장용지 | 10622 | 1,550,819,800 | 992,525,000 | 2회   |
|    | 동소 산12-4           | 임야   | 1821  |               |             |      |
|    | 동소 산12-5           | 목장용지 | 27921 |               |             |      |
|    | 동소 산9-2            | 목장용지 | 26710 |               |             |      |
|    | 동소 산9-5            | 목장용지 | 11074 |               |             |      |
| 9  | 포천시 내촌면 내리 504-32  | 기타   | 98.03 | 70,385,540    | 36,037,000  | 3회   |
| 10 |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69-4   | 하천   | 1835  | 55,050,000    | 35,232,000  | 2회   |
| 11 | 포천시 설운동 111-2      | 전    | 21110 | 571,330,000   | 571,330,000 | 신건   |
|    | 동소 111             | 잡종지  | 495   |               |             |      |
|    | 동소                 | 기타   | 224   |               |             |      |
| 12 |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36    | 임야   | 7370  | 25,794,880    | 20,636,000  | 1회   |
| 13 | 동소 282             | 임야   | 330평  | 15,113,640    | 12,091,000  | 1회   |
|    | 동소 284             | 임야   | 150평  |               |             |      |

경매 3계

(2011. 7. 7 예정)

| 번호 | 소 재 지           | 종 별  | 면적(㎡)    | 감정가(원)        | 최저가(원)      | 유찰회수 |
|----|-----------------|------|----------|---------------|-------------|------|
| 1  | 포천시 선단동 산14     | 임야   | 1983     | 436,260,000   | 178,683,000 | 4회   |
| 2  |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45 | 공장용지 | 3623     | 1,147,862,900 | 587,604,000 | 3회   |
|    | 동소 가동호          | 기타   | 576.34   |               |             |      |
|    | 동소 다동호          | 기타   | 18739    |               |             |      |
|    | 동소 라동호          | 기타   | 214.22   |               |             |      |
|    | 동소 마동호          | 기타   | 117.00 외 |               |             |      |
|    | 동소 바동호          | 기타   | 94.16    |               |             |      |
|    | 동소 아동호          | 기타   | 183.34   |               |             |      |

※ 공고사항(입찰기일 등)은 채권자·채무자·해당법원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전에 자료제공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처 :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시 물가동향

2011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원)

| 품 목               | 소흘읍    | 군내·가산  | 일동면    | 신읍동    | 영북면    |
|-------------------|--------|--------|--------|--------|--------|
| 쌀 20kg(경기미) 포천쌀   | 48,000 | 46,000 | 48,000 | 48,500 | 45,500 |
| 콩 500g(검은콩)       | 8,690  | 9,150  | 10,200 | 9,920  | 9,900  |
| 마늘 100g(건마늘)      | 650    | 1,690  | 1,100  | 1,200  | 1,225  |
| 생강 100g(홍생강)      | 640    | 720    | 730    | 900    | 700    |
| 양파 1.5kg(작은망)     | 1,690  | 2,900  | 1,520  | 2,710  | 2,350  |
| 배추 1개(포기배추)       | 1,140  | 1,500  | 1,200  | 1,300  | 1,100  |
| 애호박 1개(종크기)       | 1,170  | 1,180  | 1,080  | 1,170  | 900    |
| 대파(1단)            | 1,130  | 1,980  | 1,220  | 990    | 1,100  |
| 감자 100g(종크기)      | 200    | 340    | 198    | 270    | 300    |
| 꽃고추 100g(청고추)     | 890    | 650    | 790    | 650    | 600    |
| 상추 100g(꽃상추)      | 490    | 520    | 400    | 560    | 499    |
| 당근 100g(홍당근)      | 330    | 430    | 300    | 330    | 264    |
| 사과 400g정도(부사1개)   | 4,790  | 2,000  | 2,750  | 3,500  | 3,500  |
| 배 600g(신고배1개)     | 5,390  | 3,000  | 4,250  | 3,750  | 4,500  |
| 소고기 100g(한우)      | 4,140  | 6,200  | 5,450  | 6,000  | 5,840  |
| 돼지고기 100g(삼겹살)    | 2,340  | 2,300  | 2,480  | 2,570  | 1,975  |
| 닭고기 1마리(보통)       | 5,190  | 6,500  | 4,750  | 5,700  | 5,500  |
| 계란 10개            | 1,780  | 2,500  | 1,600  | 2,770  | 2,600  |
| 화장지 30m(24 롤두루마리) | 21,900 | 10,050 | 14,130 | 17,800 | 16,200 |
| 가루버누 3kg(1포)      | 9,600  | 19,800 | 11,250 | 14,450 | 13,125 |
| 치약 1개             | 2,310  | 1,680  | 1,580  | 1,710  | 1,320  |
| 섬유유연제(2500ml)     | 5,340  | 5,700  | 5,500  | 5,350  | 5,690  |
| 종이기저귀             | 27,500 | 19,100 | 20,550 | 20,400 | 25,000 |
| 랩(30mx50m)1개      | 3,900  | 3,030  | 2,880  | 3,170  | 3,225  |
| 호일(30mx25m)1개     | 3,910  | 3,870  | 4,300  | 4,200  | 4,100  |
| 분말커피(1병)          | 6,740  | 9,450  | 10,180 | 10,420 | 9,825  |
| 밀가루 1kg(1봉)       | 1,300  | 1,380  | 1,330  | 1,250  | 1,525  |
| 설탕 3kg(1봉)        | 4,890  | 4,220  | 5,090  | 5,060  | 5,700  |
| 식용유 1.8L(1병)      | 6,300  | 7,050  | 5,560  | 5,540  | 6,100  |
| 참기름(320ml)        | 6,260  | 6,720  | 6,250  | 5,900  | 6,875  |
| 간장 1.8L(1병)       | 4,970  | 4,320  | 6,200  | 6,250  | 6,650  |
| 된장 1kg(1봉)        | 5,240  | 5,450  | 5,400  | 5,670  | 5,750  |
| 고추장 1kg(1봉)       | 8,100  | 8,030  | 9,730  | 10,050 | 8,450  |
| 라면(5육을)           | 2,700  | 2,950  | 3,000  | 3,000  | 2,950  |
| 우유 1,000ml(1병)    | 2,130  | 1,990  | 2,200  | 2,240  | 2,100  |

※ 자료출처: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cs21.net) ※ 품질과 가격은 판매처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천시 아파트 시세

2011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만원)

| 단지명         | 면적(㎡) | 소재지     | 매매     |        | 임대     |        | 문 의           |
|-------------|-------|---------|--------|--------|--------|--------|---------------|
|             |       |         | 하한     | 상한     | 하한     | 상한     |               |
| 석함마을대방노블랜드  | 112   | 포천시 소흘읍 | 20,000 | 22,300 | 9,500  | 10,000 | (031)544-3449 |
| 석함마을대방노블랜드  | 155   | 포천시 소흘읍 | 28,000 | 33,000 | 12,500 | 14,000 | (031)544-3449 |
| 석함마을대방노블랜드  | 188   | 포천시 소흘읍 | 36,000 | 43,000 | 14,500 | 16,000 | (031)544-3449 |
| 송천마을뜨란채     | 95    | 포천시 소흘읍 | 17,000 | 19,000 | 8,000  | 9,000  | (031)544-3449 |
| 송천마을뜨란채     | 105   | 포천시 소흘읍 | 18,500 | 20,000 | 8,500  | 9,500  | (031)544-3449 |
| 연봉마을영화아너스   | 138   | 포천시 소흘읍 | 28,100 | 30,000 | 12,100 | 14,000 | (031)544-3449 |
| 우정          | 76    | 포천시 소흘읍 | 11,000 | 12,000 | 6,500  | 7,500  | (031)544-3449 |
| 우정          | 102   | 포천시 소흘읍 | 16,500 | 17,000 | 7,500  | 8,500  | (031)544-3449 |
| 원일1차        | 79    | 포천시 소흘읍 | 11,500 | 12,000 | 6,200  | 7,000  | (031)544-3449 |
| 원일2차        | 79    | 포천시 소흘읍 | 11,000 | 12,500 | 6,100  | 7,500  | (031)544-3449 |
| 원일3차        | 82    | 포천시 소흘읍 | 11,100 | 13,000 | 6,100  | 7,000  | (031)544-3449 |
| 일신          | 112   | 포천시 소흘읍 | 14,100 | 16,000 | 7,000  | 8,000  | (031)544-3449 |
| 포천상운        | 69    | 포천시 소흘읍 | 7,100  | 8,500  | 4,100  | 5,000  | (031)544-3449 |
| 포천상운        | 82    | 포천시 소흘읍 | 9,100  | 10,000 | 4,600  | 6,000  | (031)544-3449 |
| 한국캐니리       | 79    | 포천시 소흘읍 | 9,600  | 11,500 | 6,000  | 6,500  | (031)544-3449 |
| 국동의푸른별1단지   | 109   | 포천시 신읍동 | 17,000 | 19,000 | 8,000  | 9,000  | (031)535-5100 |
| 국동의푸른별1단지   | 135   | 포천시 신읍동 | 21,000 | 23,000 | 9,000  | 10,000 | (031)535-5100 |
| 국동의푸른별2단지   | 105   | 포천시 신읍동 | 17,000 | 19,000 | 8,000  | 9,000  | (031)535-5100 |
| 국동의푸른별2단지   | 152   | 포천시 신읍동 | 24,000 | 25,000 | 10,000 | 13,000 | (031)535-5100 |
| 포천국동2차스타클래스 | 106   | 포천시 신읍동 | 17,000 | 22,000 | 8,000  | 10,000 | (031)535-5100 |

※ 자료제공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

경기도 노인전문  
동 두 천 병 원

치매 · 재활 치료  
뇌졸중 · 한방 진료





## 올바른 부부관계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신혼 초에는 항상 남편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곤 했는데 최근 들어 제가 남편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요구하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되고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아 표현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욕구를 자제합니다. 또한 원치 않아도 남편의 요구에 따르는 아내들은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다스리면서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성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의 주체는 남자와 여자는 단지 그 성욕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성적 기

교만을 강조하면서 여성에게 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성적 기쁨을 얻지 못하면서도 아내들은 남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 불만족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아내에게 성적 장애가 생기는 것은 부부공동의 책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를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욕구만 채우기에 급급한 남편, 어떻게 하면 자신이 쾌감을 느낄 수 있는지도조차 모르는 아내, 진정 사랑하는 부부라면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느냐는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즐거움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의 즐거움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학습되는 것이므로 남편과의 관계 시 좀 더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다가서기 바랍니다.



이 문환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 031-542-3171



## 퇴직한 근로자에 지급하는 위로금

권고사직 처리한 직원에게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 후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 시 갑근세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는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 내용은 퇴직한 달의 급여(근로소득)로 합산하여 수정 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질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580.(2005.12.23.) 재직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당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발명진흥법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사의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46011-10094.(2001.2.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발촉진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

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22601-286.(1991.3.5.) 사용자인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박 운 중  
세무사  
(세무사 박운중)  
☎ 031-872-6116



## 매각대금 납부 전 주택임차권 대항력 생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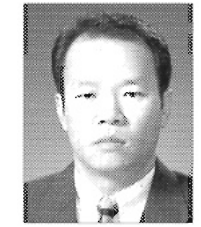
저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 및 대지를 매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위 부동산에는 제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75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5,000만원의 주택임차권이 존속하고 있었으며, 그 주택임차권 다음에 채권최고액 4,500만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 후 제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후순위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저로서는 위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실적

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위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는지요?

「민사집행법」제127조 제1항은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제6호(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해당 주택임차권 대항력 발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도 매수인

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판례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선순위 근저당

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낙찰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39조(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의 경락불허가신청 등)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8. 24. 자 98마1031 결정,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김 제 동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 031-829-9311



## 사실확인 체당금 지급 요건

사실확인 체당금의 지급 요건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하였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근로자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의 직위(이사, 부사장, 상무, 무한책임사원 등), 사업의

참여형태, 업무집행, 보수의 성격(임금 또는 위임의 대가 여부), 취업규칙,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2. 퇴직기준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임,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절차개

시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3. 체당금 지급사유 발생여부 및 그 신청일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에는 이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확인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하지 않으나,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사유와 파산선고 등이 있는 날과 그 신청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4. 당해 사업주가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6월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이 이미 판단되어 있으므로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없으나,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함

5.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강 경 만  
공인노동사  
(한솔노동사무소)  
☎ 031-877-7582~3



## 휴전과 정전의 차이점

휴전과 정전은 어떻게 다른지?

휴전은 고객의 신·증설공사, 변압기 교체공사, 지장전주(전선)이설공사, 전선교체공사, 설비의 예방점검 보수와 같이 한전의 사전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사전 통보하고 전기의 공급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며, 정전은 천재지변, 조류접촉사고, 차량충돌사고, 고압설비사고에 의한 파급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불발사고에 의해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전은 왜 발생하며,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 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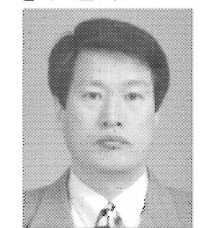
전력설비는 자연에 노출되어 있고 전 국토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자연재해, 외물접촉, 차량충돌 등 외적요인에 의한 고장발생 개연성이 상존해 있는 관계로, 완벽한 정전 방지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력회사에서 이러한 정전 피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선의의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가 되고,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경과실인 경우 정전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배를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배상합니다.

※정전피해 배상 면책관련 법령 및 규정 : <전기공급약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제한한 경우 배상면책 규정 (제49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급 중지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배를 한

도액 함 (제49의2조), 【외국의 사례】 미국 :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화재, 낙뢰, 기타 합리적인 주의를 초월한 이유로 정전이 발생 시는 면책, 독일 : 전력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급중단 불규칙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면책, 프랑스 및 일본 : 전력회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기상 이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시정전인 경우 면책.



김 홍 기  
한전 포천지점  
고객지원팀 차장  
☎ 031-539-0231



## 직장인의 질병 ‘스트레스성 불면증’

임사한지 두 달도 안 된 신입사원 강효진 씨. 꿈에 그리던 직장인이지만 사회생활의 스트레스는 강씨의 상상 이상이 다. 먹는 양이 전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체중은 점점 줄어간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출근 걱정에 일찍 누워도 늦게 잠들고 새벽에 깨기도 한다. 잠을 제대로 못자 하루가 더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힘들어 수면제라도 먹어서 잠을 자면 좀 나아갈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 효진 씨는 혹시 말로만 듣던 불면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누워

도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잠이 든 이후에도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는 증상을 보이는데 이를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 한다.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잠들려고 누웠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등 소화계통의 이상까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외에 까닭 없이 몸이 부으면서 체중이 늘거나 체중이 줄기도 한다.

인체는 자율신경에 의해 몸의 흐름을 조절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이 둘은 음양처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작용한다. 교감신경은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로 심박동수를 높이고 혈관을 수축하는 등 몸을 활동적인 상태로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휴식 때처럼 심박동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킨다.

이렇게 긴장과 이완이라는 상태를 반복하면서 지내다가 어느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상태가 지속된다. 밤에는 신체를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야 정상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으나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흥분상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 잠들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더구나 자율신경은 뇌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조절기관에 속하므로 아무리 의식적으로 교

감신경의 흥분을 낮추려고 해도 쉽게 잘을 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불면증 전문 자비원한의원 허정원 원장은 “잠이 안 오는 경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이다. 우유에 흑설탕과 식초를 조금 넣어서 단맛과 시큼한 맛이 조금씩 나도록 한 뒤 잠들기 전에 마셔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여름철에는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 습도와 온도 등의 수면환경을 개선시켜주고 흔히 말하는 보양식(삼계탕, 전복, 장어)이나 대추, 산조인, 연잎차나 영지버섯 등을 달여 먹는 것도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효능이 있다”고 말한다. 자료제공 : 자비원한의원(http://zamione.com)

# 그라비아 인쇄잉크 생산

PET / NYLON / OPP / PE / PP Film / 지류 용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념을 가지고  
완벽한 제품, 합리적인 가격으로 귀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 제조 INKS

- OPP Film용 : 일반, 저취 타입
- PET/NYLON Film용 : 1액형, 2액형, Retort용
- 처리/미처리 PE용 : 신나 타입
- 지류용 : 일반 타입, 신나 타입, 알코올 타입
- 기타 : 각 기재별 내유성 INK, 내광성 INK, 내약품성 INK, 무광코팅제, 재생PE용 착색제, 분산임가공



JEONG IL CO.,LTD

(주)정 일 본사·공장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479  
TEL : 031)533-3717 FAX : 031)533-4717



## 경기도민, 100명 중 3명은 ‘외국인 주민’

38만 명으로 전국 최다... 2010년 대비 12.7% 늘어

포천 12,235명, 도내 11번째... 중국 58%, 베트남 9%, 필리핀 5% 순



경기도민 100명 중 3명은 외국  
인주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  
민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38만 명  
으로 도내 주민등록인구 대비  
3.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세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  
났다.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전국 126만5,000명의 30%에 달하  
며 지난해 대비 12.7% 증가했다.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 38만 명

중 결혼이민자 수는 3만7,541명  
으로 전년 대비 15.2%인 약  
5,000명이 증가했다. 또 외국인주  
민 자녀수는 지난해 2만9,953명  
에서 약 7,500여명 증가한 3만  
7,519명으로 25.3%나 늘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는 5만864  
명이 거주하는 안산시로 전국 기  
초자치체 중에서도 1위를 기록했  
다. 안산시 다음으로는 수원 3만  
5,657명, 화성 3만3,400명 순으로 많  
았다. 포천의 외국인 주민은 12,235

명으로 도내 11번째로 많았다.  
거주 유형별로는 외국인근로자  
20만3,736명(53.5%), 국제결혼이  
주자(국제결혼이민자 및 혼인귀  
화자) 5만8,509명(15.4%), 외국인  
주민 자녀 3만7,519명(9.9%), 유  
학생 9,364명(2.4%)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20만8,294명  
(55%), 여성 17만2,312명(45%)이  
며, 외국인근로자는 남성이 69%,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여성이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출신이 22만10,408명(58%)으  
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만5,545  
명(9%), 필리핀 1만9,075명(5%),  
미국 1만6,344명(4%) 순이었다.  
김복운 도 다문화가족과장은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  
인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  
과를 신설해 외국인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외국인주민의  
국내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프로  
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내국인 인  
식개선을 통해 외국인주민과 진  
정한 이웃사촌으로 호흡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isnews@hanmail.net

## 입영장정과 동반가족들의 탄성과 환호

경기북부병무지청 ‘306 사랑나눔 입영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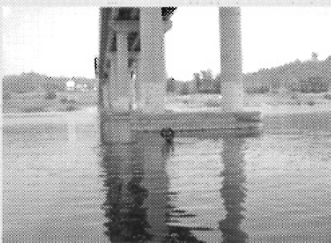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정찬호)  
은 6월 14일 의정부시에 소재한  
306보충대 연병장에서 입영장정과  
동반가족을 위한 ‘306 입영문화제’  
를 개최했다.  
매월 다른 테마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호평 받고 있  
는 ‘306 입영문화제’는 연예병사  
병장 양상협(개그맨), 일병 정경호  
(텔런트 겸 영화배우)의 사회로 3  
군 군악대의 모듬북 공연, 의장대  
시범, 어린이공연단 판공의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로 연병장을 가득  
메운 9천여 명의 입영장정과 가족  
들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어린이 공연단 판공은 깜

직한 율동으로 장정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3군 의장대의 절도 있  
는 시범은 많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입영대상자 본인이나 가  
족·친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었다  
가 전역 후에 돌려주는 「타입캡슐  
키핑서비스」를 실시해 훗날 추억이  
될 만 한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북부병무청 관계자는 “공정  
한 병역을 이행하는 대한민국의 젊  
은이들이 우대받는, 병역을 위장스  
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  
적으로 입영문화제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정병기 기자 jpk61@paran.com

연천군, 한탄강·임진강 물놀이지역 수심측정  
익사사고 예방 위험 표시시설 설치·하상정리



연천군은 매년 발생하는 여  
름철 익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6월 20일 관내 임진강·  
한탄강에 대한 수심 측정을 실  
시했다.

이날 수심 측정은 관내 잠수  
부들의 협조를 얻어 한탄강, 임  
진강 등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중심으로 실시  
됐으며, 그 결과 교각 부근은  
유속 등으로 인해 해굴돼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지형인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은 현지사정에  
익숙하지 않는 행락객의 안전  
을 위해 임진강 북상교 등 7개  
교량의 교각에 위험 표시시설  
설치와 임진강 임진교, 한탄강  
유원지 등 수심이 급격하게 깊  
어지는 구간에 대한 하상정리  
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경기도, 고위 공무원 청렴도 평가한다

도소속 실·국장급 28명 대상... 내년 4급까지 확대

공직사회 비리에 대한 문제제기  
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가 사상 처음으로  
도청 내 고위간부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6월말  
까지 경기도 소속 실·국장급 28명  
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 본인  
 스스로 청렴도를 평가해보고 자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21일 밝혔다. 평가 방식은 실·국  
장의 상·하급, 동료, 과장급 이하 직원  
 등 도청 내 직원들로 내부 평가단  
과 업무관련 전문가, 민원인 등 외  
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의 설문평가와 준법성에 대한 계량  
평가를 합치게 된다.

설문 평가항목은 최근 문제가 되  
고 있는 공품·향음 수수를 비롯해  
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직무  
관련 정보 사적 이용, 도박·음주  
 등 사생활 문란 등 총 19개로 구성  
되어 있으며, 계량 지표항목은 세  
금 체납여부, 음주운전 등 법규위  
반, 재산불성실 신고, 징계유무 등  
4개로 이뤄져있다. 이밖에 본인 스  
스로 청렴도를 평가해보고 자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평가설  
문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고위직  
공무원 평가를 준비해왔으며, 6월  
초 전문평가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  
고, 현재는 내·외부 평가단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7월 중순경에 나올 예정인 이번  
평가결과는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  
수준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자율관  
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개인별 평가결과는 외부에 공개하  
지 않고, 평가항목별 결과를 토대



로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 경기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  
용할 계획이다.

이필광 감사관은 “내년에는 도  
소속 과장급(4급)까지 평가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고위 공무  
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공직자에  
게는 ‘청렴영생 부패즉사’ 정신으  
로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고, 도민  
에게는 도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매일 업무시작  
전 전 직원이 공직자 행동강령 자  
가학습을 실시토록 행정정보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관련  
공무원과 민원인에게 청렴관련  
SMS문자를 수시로 보내고 있다.

경기도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3일 청렴도  
향상 관리직 심화교육을 실시했  
으며, 이 자리에서 ‘청렴 다짐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상창 기자 isnews@hanmail.net

## 김문수 지사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 막말 파문

‘쭈쭈뽕뽕’ 발언 이어 춘향전 성적비하 발언 물의

지난해 여성그룹 ‘소녀시대’  
에 대해 “쭈쭈 뽕뽕”이라는 표  
현을 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  
던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춘향전 비하 발언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문수(사진) 지사는 22일 오  
전 7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  
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지존회에서 “춘  
향전이 됩니까? 변 사또가 춘향  
이 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  
까”라고 발언했다.

이날 우리 역사에 나타난 관  
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예로  
들면서 이같은 발언을 한 김 지  
사는 이 말에 앞서 “공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청백리 따지  
지 마라. 대한민국 지금 공무원  
이 얼마나 청백리냐, 역사를 보  
세요”라며 대다수 공무원이 깨  
끗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따 먹는다”는 표현은 시정잡  
배들도 쓰지 않는 저급한 표현  
이다. 김 문수 지사 눈에 권력  
에 쫓박받는 춘향이 “따먹을”  
머거리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것인가. 대단히 불쾌한 성비하  
발언”이라며 “김 지사는 부적절  
한 발언으로 도민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이날 강연에서  
“일본 원전 사고 뒤 방사능비를  
우려해 학교장 재량 휴업조치를  
며, 이 자리에서 ‘청렴 다짐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통해 “아이  
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지도  
자로서 해  
서는 안될  
발상”이라  
고 반박했  
다.

이에 대  
해 경기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평소 강연을 통해  
우리 역사상 공무원 부정부패의  
예로 춘향전과 홍길동전을 들었  
는데, 이번에는 과한 표현을 했  
다”면서 “지사가 청중에게 유머  
를 한다는 것이 말실수가 됐다”  
고 해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  
도 교육감이 일본 원전 폭발 후  
에 비 온다고 교장선생님 마음  
대로 하라고 재량권을 썼는데  
해의 토박감”이라면서 “경기도  
는 후쿠시마 옆의 도(道)구나  
하는 오해를 해서 제게 (누가)  
몰러 보더라. 북한 핵무기는 말  
머거리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것인가. 대단히 불쾌한 성비하  
발언”이라며 “김 지사는 부적절  
한 발언으로 도민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성  
명을 내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  
각하지 않은, 지도자로서는 해  
서는 안 될 발상”이라며 “경기  
도정이나 열심히 하시길 바란  
다”고 꼬집었다.

이상창 기자 isnews@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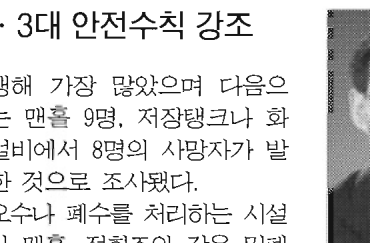
## 여름철 밀폐공간 불청객 질식사고 ‘조심’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보발령·3대 안전수칙 강조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맨홀, 정화조 같은 밀폐공간에  
서의 작업에 대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부산  
광역시 하수도 보수공사장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구 내부  
로 들어가던 근로자가 질식해  
쓰러지자 이를 구하려는 동료  
근로자가 함께 질식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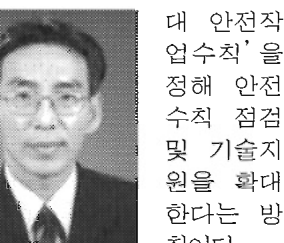
이처럼 여름철 밀폐공간은  
기온상승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의 위  
험성이 높아진다. 실제 산업현  
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관련 재해  
사망자는 37명으로 이 중 48%  
에 해당하는 18명이 6월에서 8  
월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작업  
장소로는 오수나 폐수를 처리  
하는 시설이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는 맨홀 9명, 저장탱크나 화  
학설비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  
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수나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이나 맨홀, 정화조와 같은 밀폐  
된 공간은 출입이 제한되고 환기  
가 잘 되지 않아 산소가 쉽게 고  
갈되고 황하수소 같은 유해가스  
의 증가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 환기  
나 보호장비 없이 들어가거나  
작업을 할 경우,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의식상실, 경  
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산소농  
도가 10% 미만인 상태의 공간  
은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수분  
내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이사장 노민기)은 6월에  
서 8월까지를 산업현장 질식사  
고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경보발령과 함께 ‘밀폐공간 3



대 안전작  
업수칙’을  
정해 안전  
수칙 점검  
및 기술지  
원을 확대  
한다는 방  
침이다.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  
은 1.작업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작업 전  
과 작업 중 환기설비 3.밀폐공  
간 구조 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이다. 이밖에 감시인 배치, 인  
원 점검, 안전장비 구비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형  
철(사진) 경기북부지도원은  
“올 여름은 평년보다 비도 많이  
내리고 높은 기온을 유지 할 것  
이라는 기상예보를 고려할 때  
어느 때 보다도 밀폐공간 질식  
에 대한 안전이 중요시 된다”며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기 기자 jpk61@paran.com

##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응급처치’ 단체 교육

심폐소생술 등 실습 위주로 대처요령 사전 습득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은  
지난 5월 25일과 6월 22일에 나누어 직  
원 60여 명이 참여한가운데 경기도 및 의정  
부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응급활동의 원칙 및 요령, 응  
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응급의료 관련법령,  
각종 질환상황에서의 응급처치법, 기본 인명  
구조술 이론과 실습, 심폐소생술(CPR), 자동  
제세동 사용법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최근 심혈관계, 뇌혈관계 등 응급질  
환의 증가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등  
을 공단 직원들이 사전 습득해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교육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공단의 직원 수는 2010년 수료자 포함  
전체 84명에 이르며, 교대 근무로 인해 교육  
을 받지 못한 직원들도 차기에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공서비스분  
야 고객만족 및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시설관리공단이 되고자 하는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의 노력”이라고 전했다.

차성운 포천신문 시민기자

# 재외동포산업기술연수

누구나 쉽게 따는 컴퓨터자격증!!

연수비용 25만원 실습비 없음

H-2로 가는  
가장 쉽고 빠른 길

연수  
직종

## 정보처리기능사

C-3

(단기연수)

C-4

(일반연수)

H-2

(방문취업)

F-4

(재외동포)

F-5

(영주)

일반기능사 자격증은 정기검정 1년 4회 시험이  
실시되나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은 상시검정으로  
매월(每月) 시험이 실시됩니다.

**연수직종 중 배우기 쉽고  
남·여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자격증!**

매월  
개강

교육  
시간

토·일·반

주중반  
(월~금)

오전 9시~오후 2시(5교시)  
오후 2시~오후 7시(5교시)

오후 8시~오후 10시(2교시)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지정학원

## (의정부)고려정보기술학원

상담직통 010-5436-2238 대표전화 (031)826-003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0-14

의정부역 2번 출구 시청방향으로 200m 직진



# 육군 수기사, 호국보훈의 달 ‘지역주민과 함께’

## 포천 승진훈련장 공지합동훈련에 신북면 주민들 초청 가평 초·중등 학생들 부대 초청, 병영체험 기회 제공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 왕호 대대는 지난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공지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K1A1 전차, K200 장갑차, K-55 자주포, AH-1S(일명 코브라) 헬기, F-15K 공군 전투기 등이 참가하여 지상과 공중에서 막강한 화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15일 훈련 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대가 포천시 신북면 지역주민 80여명을 훈련장으로 초청해 훈련 내용을 설명해주며 대한민국 국군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다.

훈련을 관람했던 심곡리 이장 박군중 씨는 “눈앞에서 불빛이 번쩍 일어났다가 천지가 진동하며 천둥번개와 같은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들린 시점에는 이미 포격에 포탄이 명중해 화염과 함께 뿌연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며 “말로만 들던 최강 맹호부대의 전차포 사격을 직접 보며 우리 국군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초청행사를 계기로 강력한 안보태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는 군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6월 22일 부대는 가평군내 초·중등 학생(조종초, 조종중, 청평중)들을 부대로 초청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 부대를 방문한 학생들은 역사관을 견



포천 신북면 주민들이 훈련을 관람한 후 K1A1전차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학교와 부대소개 영상을 시청하였으며, 병영생활관을 둘러보고 병영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군인이자씨들이 평소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보고 느꼈다.

이후 훈련장으로 이동해 약 1시간 동안 K1A1 전차와 K200 장갑차 부대가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을 가한 뒤 빠르게 이동하여 목표물을 점령하는 훈련을 관람하며 탄성과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다.

학생들을 인솔한 조종중학교 손은희 선생님은 “요즘 학생들은 안보의식이 부족하는데 이번 병영체험을 통해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안보의식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4일부터 포천과 가평 지역의 학교에서 지휘관 및 정훈장교들이 일일 안보교사로 활동하고, 6.25 사진 전시회를 병행해 학생들과 국가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창설기념일 때 6.25 전쟁과 월남참전용사를 초청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부대를 개방하는 행사를 통해 선배전우 및 주민들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키워나가고 있다.

이성창 기자 lscnews@hanmail.net

# 포천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뜬다

## 7월부터 2개월간 산정호수 등에서 활동

포천소방서는 지난 6월 24일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에서 여름 수난사고 자립이로서 역할을 수행할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갖고 결의를 다졌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22명으로 구성돼 오는 7월 1일부터 2개월간 산정호수, 수동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민·관 합동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해 물놀이중 안전사고대비

구조요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구명환 및 구명조끼활용 수난구조훈련 등 현장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신종훈 서장은 민간인 자원봉사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119 시민수상구조대의 승고한 봉사정신에 감사를 표하면서 “민과관이 협력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장애 당사자들, 끊임없이 역량 개발해야”

## 포천장애인자립센터, ‘I can do it 아자’ 생활교육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송기태, 이하 센터)는 지난 6월 16일 포천시 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011 자립생활교육-I can do it 아자!’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개인의 자립생활의 목표를 달성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안진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가 초빙돼 2시간에 걸쳐 ‘할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다. 안진환 상임대표는 “이론과 현실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겪어야 할 많은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 같이 분발해야 한다”며 “앞으로 30년 후 한밤에 걸맞는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에 따른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사)발달장애인지원생활센터(소장 김원) 난타공연팀이 동료 장애인들을 위한 난타 공연을 펼쳤다.

센터 관계자는 “이날 교육에 참여한 장애우 80여 명과 자원봉사자 5명, 기타인원 5명 등에 대한 식사를 비롯한 기타 경비를 90여 만원의 열악한 예산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하지만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갈망을 직접 느꼈다”고 전했다.

송기태 소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자립생활기술교육을 정기적인 프로그램화해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계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뉴스 라인

## 무한돌봄-영종면 ‘사랑의 집수리’



포천시북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지난 6월 22일 포천시 영종면에 위치한 지붕에 비가 새고 있어 장마를 나기가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세대의 지붕수리를 위해 영종면주민자치위원회와 주거환경개선활동을 펼쳤다.

이날 집수리에는 영종면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오각근 영종면장이 이날 참석해 지역사회 내의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관심과 열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무한돌봄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인 전씨는 독거노인으로 빗물줄기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처와 이혼 후 자녀와도 연락이 두절됐고, 이웃의 도움으로 허름한 집을 무상임대하여 생활을 이어가던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로 집이 매우 낡아 지붕에서 비가 새고 있었지만 수리를 할 여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영종면사무소와 영종면주민자치위원회, 북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는 다가을 장마철을 대비하여 누수 위험이 있는 가구를 포함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포천시 ‘돼지풀 뽑기 경진대회’ 개최



포천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 읍·면·동이 참여하는 ‘우리마을 돼지풀 뿌리째 뽑기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토종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하고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해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단종돼지풀의 효과적 제거를 위해 개최됐으며, 시는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식물종을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원진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대회는 공무원, 주민, 기관단체, 군인의 자발적 동참을 통해 돼지풀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3일 현재 포천시 전역에서 185톤의 돼지풀을 뿌리째 제거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대회의 결과를 24일까지 집계해 1등 1곳, 2등 2곳, 3등 3곳 등 총 6개 우수 읍·면·동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기사제보 · 광고문의  
☎ 031-542-1507

# PHOTO

## “선배님들의 충정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선배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과 희생! 감사합니다!” 육군 5군단 장병들이 6월 25일 6.25전쟁 61주년을 맞아 한국군 전몰장병 및 16개 참전국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우일 포천신문 노인명예기자



# 포천소방서, 출동 중 교통사고 방지 교육

## 소방·경찰 공조한 양질의 안전서비스 기틀 마련



포천소방서(서장 신종훈)에서는 지난 6월 22일 3층 회의실에서 내근자 및 비번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관 확립과 출동 중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포천소방서는 이날 포천경찰서에 근무하는 교통관리담당 김기수 경위를 초빙해 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과 사고 시 대응요령 등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교통안전의식을 향상시켰다.

소방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장 뿐 아니라, 각종 사고현장에서 소방과 경찰의 공조를 통한 입체적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축구마을분양

전원주택(수익형 세컨 하우스)  
건축면적 : 72.74㎡ (전용평수 22평)  
대지면적 : 290.11㎡ (전용평수 77평)  
분양가격 : 1억6천9백만원  
용 자 : 40%

김의태바르셀로나축구학교  
<분양문의> 031-536-6282

# 가산지하수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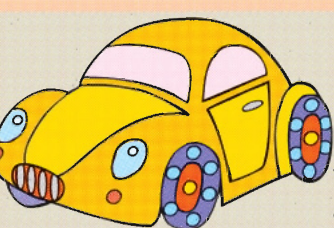
대표 이강문/원희순

·유압기·소공 ·대공  
·농업용·농수용·식수전문  
전 화 : 031-544-2483  
휴대폰 : 010-5354-2483

송골포도농원  
가산포도: 당질 최고 휴대폰: 010-7332-0137

# |주| 1급현대카독크

보험·일반수리·도장·판금 전문업체, 자동차검사



대표이사 김 창 환

포천시 어룡동 어룡2동 85-4

전화: 031)535-6900, 536-1756~8

휴대폰: 010-4131-6810

# LIG / PM 팀장 kdb생명 수석팀장

팀장 박혜자  
신입사원 FP모집  
전화: 031-536-1473, 팩스: 531-6003  
휴대폰: 011-324-0722  
이메일: ppp3800@hanmail.net

# 포천포도와인영농조합

“홍삼포도와인” 출시  
맛은 최고 가격은 저렴  
대표 원종현  
전 화: 031-541-9090  
휴대폰: 010-8886-7420

# 새싹보리밥

대표 김 경 준  
새싹보리밥  
김치말이국수  
전 화: 031-541-1313  
(위치: 하송우리 입구 조선음탕 옆)

# 원조 어룡리 동태마을

대표 임 주 성  
동태집, 생태전골, 돌솥비빔밥  
위치: 어룡3동 버스정류장 옆  
예약문의: 031-536-1132  
휴대폰: 011-663-2030

# 대성산업가스

LPG 벌크  
031) 536-0033  
031) 542-3060  
대표 김 오 섭  
소형·대형 벌크시설/산업체시설  
아파트 및 빌라시설/학교 급식시설

# 포천컴퓨터사 (한신, 경원 컴퓨터)

소장 천 태 관  
각종 컴퓨터 판매수리, 보정판매  
고급주문제작, AIR 배관설치(출장 환영)  
전 화: 031-544-7001  
팩 스: 031-541-0767  
휴대폰: 010-5033-0711

# 이피에스산업

대표 고 한 중  
진공성형, 게도바시, 브리스타, 가설방음벽  
포장용기 전문업체  
전 화: 031-543-8338  
팩 스: 031-543-2422  
휴대폰: 011-796-4811

# 아놀드파마/타올갤러리

대표 김 영 숙  
결혼, 칠순, 야유회  
우산·기념타올  
전 화: 031-542-8531, 팩스: 542-8532  
휴대폰: 010-8557-7883

# 송우지게차

대표 권 영 수  
지게차 4.5톤, 5톤, 7톤, 25톤  
다기능 대형 페로이더 보유  
전 화: 031-541-5533~4  
031-542-5533~4

# 구&박 스포츠

대표 구 본 각  
신·중고 헬스기구 취급전문  
전국 각 시도 임원 및 선수 상담환영  
휴대폰: 011-464-4134  
FAX: 031-542-7941  
제2창고: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548번지

# 사랑샘 너싱홈

대표 김 재 식  
노인 주·야간보호  
▲의료 재활서비스 ▲각종 치료프로그램  
▲영양 식사 및 간식  
전 화: 031-543-1011  
휴대폰: 010-9910-8339  
위치: 포천시 선동 760-2세종로건물 1층(선동초등학교 앞구내)

# 그랜드 생고기 전문점

한우암소고기, 암소등심, 안심,  
한우특수부위, 차돌박이  
한우불고기, 한우육회  
예약문의: 031)541-2712  
위치: 선단동사무소 입구

# 양자파 웰빙건강카페

21C 첨단 대체의학, 100세 고령화  
시대 건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성분들의 고민 요실금, 디스크/관절 비만관리,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  
·남성분들의 탈모 및 탈진(전립선, 배뇨장애...)  
새로운 체질을 해보세요  
전 화: 031-542-5355  
휴대폰: 010-2293-6529  
포천시 선단동 81-5(미앤미화장품 사무실 내)

# 안경박사/금강 보청기

대표 김 중 기  
콘택트(색맹·색약)  
렌즈 전문  
전 화: 031-535-3518~9  
휴대폰: 011-440-3518

# 휘오레 레스토랑

대표 김 찬 미  
메뉴-스파게티 전문  
호프·점심특선  
전 화: 031-544-3939  
휴대폰: 010-5007-5543



# 포천 이동파출소 경찰의 ‘아름다운 선행’

## 정신질환 아들 응급차에 옮겨주고, 다시 찾아가 위로 격려

### 할아버지 “고맙습니다”에 최완규 소장 “할일 했을 뿐입니다”



박원영 할아버지가 이동면파출소를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줄 왼쪽부터 최완규 파출소장, 박원영 할아버지(왼쪽 사진)

지난 5월 23일, 포천시 이동면 도평3리에 사는 박원영(71) 할아버지는 아들(40)의 응급 상황 때문에 크게 놀랐지만 경찰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아들은 10년 전 마을 앞 도로에서 당한 교통사고 이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서울 K병원을 오가는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로 호전돼 농

사일도 도와주고 돼지 사육도 곧잘 도와주는 효자였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아들이 자기 머리를 두손으로 내리치며 발작 증세를 보인 것이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야 했지만 응급차가 늦어져 다급한 나머지 112로 신고했다. 몇분 지나지 않아 응급차가 도착하고,

곧바로 경찰 두 명도 함께 도착했다. 이동파출소 소속 이창우 경장과 김보성 순경은 아들을 안전하게 응급차로 옮겼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아들은 이제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아 조만간 퇴원을 앞두고 있다.

아들이 병원으로 후송된 지 2주가 지났을까, 박 할아버지덕에 예

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동파출소 최완규 소장(경위)이 사고 당일 출동했던 이 경장, 김 순경과 함께 수박 한 통과 음료수를 들고 찾아온 것이다.

마음의 빚을 진 박 할아버지는 6월 24일 시간을 내 이동면파출소를 찾아가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데 도움을 주신 것도 감사했는데, 경찰이 집으로 다시 찾아와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이 곧 퇴원하게 됐습니다.”

이에 최완규 소장은 “병원에 실려오자마자 소식을 듣고 급급하고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많이 걱정돼 찾아가게 됐다”면서도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또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이동면파출소는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는 치안활동을 넘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주민 친화적인 대민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 경기도, 공직비리 근절 특별 감찰 돌입

## 5개 반 27명 감찰반 편성... 공직기강 확립 등 감찰

### 포천교육청은 자율감찰팀 운영 “교육비리 발본색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7월 1일부터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 감찰 활동을 벌인다. 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5개반 27명 규모의 공직문화 개선 및 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해 ▲공직기강 확립 점검체계 강화 ▲기강해이 집중감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토착비리 차단 ▲반부패 분위기 및 의식제고 등 4개 테마 5대 중점감찰 유형을 선정해 전 방위 감찰을 펼칠 예정이다.

5대 중점감찰 유형으로는 ▲공직기강 해이 : 음주운전, 성매매, 카지노 출입 등 품위손상행위 등 ▲토착비리 : 지역토착세력과 유착, 이권 개입, 청탁, 편법 수의 계약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 : 정치권 출서기, 공직 내 편 가르기 등 ▲관행적·고질적 비리 : 건축, 건설,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등 ▲국민불편 방지 등 직무태만 : 민원 부당지연, 불법·무질서 방치, 안전대책 소홀 등이다.

특히 공사편의 등의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공직비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술 값 또는 식사비 대납 요구 행

위, 시간의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또한 유사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선진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능동적 개혁 프로그램 등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 우수 공직자 등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필광 도 감사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합리한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하며 이중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도는 28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도, 시·군, 공공기관 감사관계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계획’을 시달한다. 이날 회의는 공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 타파, 비위 차단을 위해 ‘공직윤리의식 재확립’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엄격한 인사발령 원칙 적용’ 등 중점 감찰 방향을 설명하고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한다. 또 기관별 감사담당 부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시 감찰반 구축방안과 도, 시·군, 공공기관, 사법기관의 상호 공조체제 강화 등 감찰 필요성 확보 방안도 심도 있게 토의한다.

한편,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웅)도 교육분야 부패예방을 위한 자율감찰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 29일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자율감찰팀은 학부모와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비위 행위 취약한 계약관리와 급식관리, 운동부운영, 현장학습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금품향응·수수 등 공직자 비위행위 관련 정보수집과 부조리, 불친절 행위, 청렴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반부패·청렴을 생활화하고, 각종 교육 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포천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돼 달라”

## 포천署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가져

포천경찰서(서장 이상원)에서는 지난 6월 23일 포천경찰서 4층 강당에서 주민, NGO, 관계자 등 70여명을 참여한 가운데 주민토론회를 가졌다.

이상원 서장은 인사말에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경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찰업무에 대하여 가장 없이 진솔하게 말씀해주시는 주민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경찰업무수행에 반영하여 진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순 성폭력상담소장은 “치안 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이 되도록 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철저한 보호를 하여주길 바란다. 우리도 가정폭력 등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현구 군내면 직두 1리 이장은 “경찰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쓴 소리를 듣고 치안활동에 반영을 하기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을 위한 경찰이 되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포천서 아내 불륜 의심 살해 뒤 자수

포천경찰서는 24일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편 김모(5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포천시 신읍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60)의 남자관계자를 의심해 다투다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

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 의정부서 30대 성폭행범 전자발찌 끊고 도주

## 의정부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성폭행범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사법당국이 추격에 나섰다.

23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홍모(39)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20분께 의정부시 녹양동 자신의 집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담당 보호관찰관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10분 만에 도착했지만 홍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의정부보호관찰소

는 김씨가 살던 지역의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홍씨를 지명수배했다.

홍씨는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2008년 3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재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있었지만 훼손하고 달아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 의정부 한 나이트클럽 옥상 큰 불

## 2시간만에 진화, 인명피해 없고 재산피해3천5백만원

지난 6월 22일 오전 5시 1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소재한 호박나이트클럽 3층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영업시간이 끝난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으며, 이날 화재는 해당 건물의 집기류와 옥상 가건물이 타는 등 소방서 추

산 총 3,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건물 2층과 3층 외벽에서 연기가 솟는 등 비교적 큰 불이였으며, 소방당국에서는 소방차 20여대와 인력 50여 명을 출동시켜 총력 진화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포천감리교회, 9월부터 주차장 개방

## 시와 부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 담장 철거, 편의시설 설치 예정

포천감리교회(목사 엄상현)는 지난 6월 17일 교회 주차장 부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포천시와 토지사용 협약식을 체결했다.

포천감리교회 주차장은 신읍동 136-5번지(면적 1,874㎡)에 위치하며, 감리교회의 전용 주차공간으로 사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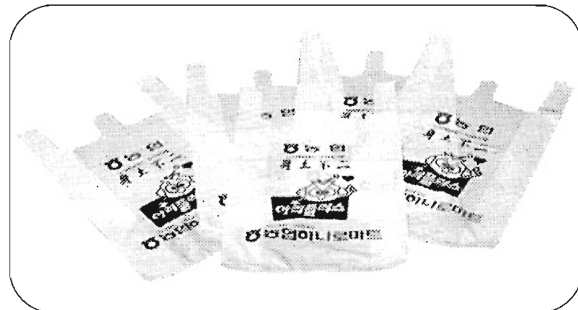
장미환 교통행정과장은 “기존 노후된 담장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약50면)과 벤치를 비롯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오는 9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며 “주차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주차장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포천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90분 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요일 등 교회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시는 주차장이 완성되면 구절초길(천주교~신읍사거리) 노상주차장(약50면, 9월 1일 유료운영)과 함께 도심 내 주차장이 100여면 정도 크게 늘어나 그동안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대봉메리트



# 비닐쇼핑백, 각종 비닐포장재 전문생산

포장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대봉메리트는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원라인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 대봉메리트

www.dbmerit.com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11-4  
Tel. 031)544-0051  
Fax. 031)544-0052

대표: 임 대 섭



## 포천시민축구단, 3년 연속 FA컵 진출

### 김경호·이후선 ‘해트트릭’ 영광에 6-1 대승

홈 17경기 무패행진... 전기리그 1위 수성

챌린저스리그 최강 포천시민축구단(이하 포천)이 전기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영광FC(이하 영광)를 상대로 각종 기록을 마구 쏟아냈다.

포천은 지난 6월 25일 오후 5시에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Daum 챌린저스리그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김경호와 이후선의 맹활약에 힘입어 6-1로 승리, 홈에서 17경기 무패행진을 펼치며 ‘안방불패’의 신화를 이어갔다.

또한 창단 이래 2명의 선수가 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이후선은 결승골 포함 해트트릭을 수립, 2년 연속은 물론 팀 통산 7번째 주인공이 됐다. 김경호는 입단 후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기록, 생애 최고의 순간을 누렸다. 이후선은 시즌 40호 골, 김경호는 리그 200호 골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이후선과 김경호의 맹활약으로 영광을 6-1로 대파한 포천은 11승3무1패의 성적으로 승점 36점을 획득, B그룹과 통합순위에서 각각 1위를 달리며 전기리그를 모두 마쳤다. 올 시즌 FA컵에서 ‘한국판 칼레의 기적’을 일으킨 포천은 이번이 없는 한 2012년 FA컵 진출권을 확보했다. 3년 연속 FA컵 진출

이다. 이날 포천이 세운 각종 기록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장마로 인해 그라운드엔 폭우가 쏟아진 것은 물론 주전골 선수 3명이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했지만, 선수들의 몸놀림은 가벼웠다. 전반 3분 상대 파울로 얻은 프리킥을 이후선이 골대 구석으로 멋지게 감아차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선은 또 전반 11분 문전 중앙에서 왼발슛으로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승기를 잡은 포천은 전반 15분과 39분에 김경호가 잇따라 슛을 성공시키며 영광 수비를 농락시켰다.

영광은 신호준이 전반 12분 자신의 7호 골을 성공시키며 분전했지만, 포천의 강력한 수비에 막혀 더 이상의 추가골은 성공시키지 못했다. 전반을 4-1로 크게 앞선 포천은 후반에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는 여유를 보였다.

입단 후 처음으로 경기에 뛴 김영석과 김차들은 중앙수비와 중앙 미드필드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며 향후 주전경쟁을 예고했다. 전반에 2골을 성공시킨 김경호와 이후선은 약속이나 한 듯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해트트릭을 세웠다.



김경호는 후반 16분 5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자신의 축구인생에서 첫 번째였다. 이에 뒤질세라 이후선도 후반 29분 하프라인 50m지점에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2년 연속 해트트릭을 수립하는 순간 관중들은 탄성과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날 장마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장원 포천시장,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홍성훈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중국 포천시생활체육회장, 이형직

시의원 등 관내 내빈과 3백여 명의 축구팬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멋진 경기를 펼친 포천 선수들에게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전기리그를 마친 포천은 오는 7월 11일부터 2011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뒤 오는 8월 5일부터 충북 제천에서 개막되는 ‘2011 챌린저스리그컵 대회’에 출전한다. 챌린저스리그 후 기리그는 오는 8월 20일 16라운드부터 진행된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꿈을 안고 경기로! 손을 잡고 세계로!’

제92회 경기도 전국체전 마스코트 ‘꿈이-손이’ 확정  
10월 6일~12일 20개 시·군에서 역대 최대 규모 참가



경기도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구호를 ‘꿈을 안고 경기로! 손을 잡고 세계로!’로 정하고, 엠블럼과 마스코트 ‘꿈이-손이’를 확정했다.

엠블럼은 경기도의 톨과 모드를 활용해 제자, 로고의 윗부분에 있는 체전의 성화로 체전 정체를 나타냈고 중앙의 하트모양으로 화합과 하나됨을 표현했다.

전체 형상은 역동적으로 움직

이는 사람을 표현했고, 한 발 앞으로 뻗는 듯한 모습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기도 이미지를 반영했다.

마스코트 ‘꿈이’와 ‘손이’는 흔히 담긴 붉은 뱀파이어를 형상화 의인화 했다. 뱀의 연두색과 열정의 오렌지, 건강의 파랑색을 사용했고, 단결과 화합을 표현하는 문양을 디자인했다.

도는 전국체육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상징물 뿐만 아니라 경기도만의 특색과 브랜드 가치를 구현한 개·폐회식, 성화봉송 행사 계획도 확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며, 대회 기간을 전·후해 도내 지역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도는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도내 20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만8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전국체전추진기획단과 대회조직위원회 산하 집행위원회와 시·군 운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성창 기자 isnews@hanmail.net

## 국립수목원 ‘식물교실’ 운영한다

실내 원예식물, 분재, 식물일기 프로젝트 등

7월 6일~9월 23일  
10월 특별전시회도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이 연구를 통해 축적한 식물 증식, 관리, 재배, 활용 및 전시기법을 일반시민에게 이론과 실습을 통해 체계적으로 알리는 식물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식물교실은 오는 7월 6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내 원예식물 교실’, ‘자생식물 사진교실’, ‘난 교실’, ‘분재교실’, 초등학생을 위한 ‘식물일기 프로젝트’ 등 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강사로 국립수목원 전문가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실내 원예식물 교실’은 한 회 참여하는 3시간 과정으로 6일부터 9월 21일까지 6회동안 수요일에 운영하며 가정용 화분관리, 실내 원예식물의 종류와 관리법 등에 대한 이론과 다양한 식물을 이용한 ‘나만의 정원 만들기’를 통한 실습이 병행된다.

‘자생식물 사진교실’은 한 회 참여하는 3시간 과정으로 14일부



터 9월 22일까지 6회 동안 목요일에 운영하며 수생식물을 포함한 우리식물 그리고 열매를 활용하는 기술과 활용과정을 통해 자생식물을 배우는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며, 그 결과 10월에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난 교실’은 한 회 참여하는 3시간 과정으로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6회 동안 금요일에 운영하며 가정용 화분관리, 실내 원예식물의 종류와 관리법 등에 대한 이론과 다양한 식물을 이용한 ‘나만의 정원 만들기’를 통한 실습이 병행된다.

‘자생식물 사진교실’은 한 회 참여하는 3시간 과정으로 14일부

종류와 관리, 증식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우고 수료 후 수료증 발급 및 작품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식물교실은 사진촬영, 미니가드닝, 작품전시회 등 다채롭고 창의적인 실습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식물과 친해질 수 있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식물의 가치와 중요성 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물교실 강좌 신청은 이메일 (njk1201@forest.go.kr) 또는 전화 (☎ 031-540-1037)로 가능하고 매 회 15명 내외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영광 기자 prostar44@gmail.com

## 경기북부 첫 프로팀 ‘고양 오리온스’ 출범

KBL, 연고지 이전 승인... 10월 시작 2011~2012 시즌 출전



경기북부지역에 연고를 둔 첫 프로 스포츠팀인 ‘고양 오리온스’ 프로농구단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지난 6월 27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오리온스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을 승인했다. 고양 오리온스는 고양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10월부터 시작되는 프로농구 2011~2012 시즌에 출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연고 구단을 보유하고, 시민들도 인기 스포츠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오리온스 농구단은 일산서구 대화동 종합운동장 옆에 짓고 있

는 고양체육관을 사용하게 된다. 고양체육관은 다목적체육관, 보조경기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을 두루 갖췄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 9일과 10일 국제체조선수권 대회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된다.

특히 프로농구 경기가 벌어질 1층의 다목적 경기장은 6,988석의 관람석을 갖췄다. 또 미국 NBA 경기에서 볼 수 있는 6각 전광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치했다. 경기시간과 기록은 물론 선수의 프로필이나 사진, 주요 경기장면의 재생이 가능하다.

오리온스 농구단은 1997년 출범한 프로농구의 원년 멤버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6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기록을 쌓았으나, 최근에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연고지 이전과 더불어 다시 도약을 노리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KORSA** 한국상조협회

전국 직영 서비스  
제주도 포함

# 믿을 수 있는 기업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한강라이프(주)에 맡기세요.**

한강라이프(주)는 한국상조협회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여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탄탄하고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입니다.

- 웨딩 서비스
- 돌·백일 서비스
- 칠·팔순 서비스
- 장례 서비스
- 어학연수



한강라이프(주)와 필리핀 최고 명문 CPILS가 함께하는  
**어학연수 상품 출시**

대한민국 고객만족도 우수기업  
**한강라이프(주)**

웨딩 / 돌·백일 / 칠·팔순 / 장례 / 어학연수

고객센터 **1688-9088**  
http://www.hankanglife.com

NAVER **한강라이프** DdM **한강라이프**  
네이버, 다음에서 '한강라이프'로 검색하세요.